Vol. 11 No. 18 May 1 2015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Bostonkorean@hotmail.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한인회, 다른 명칭으로 새출발

"과거 세금보고 누락 잘못 인정한다"
한선우 회장 비롯 이사들 10명 참석
9대1 표결로 김경원 한인회장 인준

한인회 이사회는 29일 우번 소재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세금 보고 문제와 김경원 한인회장 인준 문제를 처리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회(회장 한선우) 이사회가 2005년부터 9년에 걸쳐 세금 보고를 누락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39대 한인회부터는 새로운 명칭으로 새출발 할 것임을 밝혔다.

한인회는 지난 4월 29일 우번 소재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세금보고 문제와 신임회장 인준 안건에 대한 토의를 펼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선우 현 한인회장을 포함한 남궁연, 안병학, 이경해, 한순용, 유한선, 최한길, 유영심, 한문수, 강승민 이사가 참석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9대 1의 표결로 김경원 관장을 39대 한인회장으로 인준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세금 보고가 되지 않는 한인회의 기존 영문 명칭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를 버리고 새로운 명칭의 한인회를 출범키로 했다.

이로써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새로운 영문 명칭과 텍스 아이디(Tax ID)를 만들어 비영리단체 자격을 재신청하게 되며 현 한인회의 세금 보고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새 명칭의 한인회로 대체된다.

한선우 회장은 "(기존의 한인회를 복구하는 것은) 절차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지금까지의 잘못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겠다" 고 전했다.

세금문제를 떠안고 있는 현 한인회에 대해

▸▸3면으로 계속

아베 하버드 연설 사과는 없었다

하버드 학생 및 한인 시위대 100여명
아베의 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시위차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27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본연설 동안 과거사 문제나 위안부에 대한 사과 언급을 회피했으며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한 한인학생의 질문에 일반적인 견해만 내놓으며 구체적인 거론을 피해갔다.

한인 하버드생 조셉 초(Joseph Cho)는 연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민감한 이슈지만 한국인으로서 질문한다" 며 "일본의 위안부 성폭력은 증거도 있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는 늘 사실을 부인해왔다. 아직도 부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베 총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Victims of human trafficking)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전의 일본 총리들과 같은 마음이다. 과거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는 메시지를 전달했지

▸▸7면으로 계속

편 / 집 / 국 / 에 / 서

한인회 이사회가 남긴 오물과 선물

장명술 |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장고 끝에 꼼수가 나왔다. 뉴잉글랜드 한인회(보스톤 한인회)의 이사회는 지난 29일 밤 이사회에서 김경원 39대 한인회장을 9대 1로 인준했다. 그러나 같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지난 한인회의 영문 명칭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를 더 이상 사용치 않기로 결정 내렸다. 지난 2006년 이래 누락된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명칭으로 새출발 하겠다는 것이다. 한인회의 역사가 우번 켐벨 스트리트 소재 10평 남짓한 회의실 지하로 묻히고 있는 순간이었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은 한 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이사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강승민 사무총장이 인용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변호사는 "지난 9년간의 세금보고는 자칫 세무조사를 불러 올 수 있다. 9년간 모든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 하나하나 사용처를 조사받게 되는 경우 또 다른 골머리를 앓게 된다. 새로운 명칭과 납세번호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는 조언을 했단다. 그러나 이사회는 다른 전문가의 2차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기본적인 점검도 하지 않았다.

다른 전문가들은 의견이 달랐다. 보스톤코리아가 인터뷰한 A 회계사는 "지난 9년간 세금보고를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 단 9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연체된 세금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한인회의 고용관련 세금이 문제다. 이것과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은 2010년 5월 이후 세금보고에 약간의 금액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날 이사회를 관통하는 논리는 편의성이었다. "굳이 번거로운 일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름만 조금 바꾸고 새로운 세금 번호 받아서 새롭게 한인회를 이끌어 가면 된다. 더구나 한인회는 매년 총회를 통해 결산보고와 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회장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하는 것이 이날 이사회가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은행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주는 게 은행 스테이트먼트다. 한인회장들이 굳이 결산을 통과할 정도의 감사를 받았다면 왜 세무조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A 회계사는 "한인회의 경우 세무조사가 나와도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있으면 된다. 비영리단체라 세금낼 것이 별로 없다. 다만 고용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세금부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주장한 편의적 세금보고 회피는 일반 회사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회사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한인회는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단체가 아닌가. 또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단체가 비록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편의적인 새로운 명칭을 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들의 명예와 한인회의 명예에는 계속 세금보고 누락과 회피란 주홍글씨가 따라 다닐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한인회장들에게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세금 보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다. 과거의 문제를 덮기 위해 향후 한인회 자의적 운영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장들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더구나 결정을 내린 이사회 구성원 절반이 과거 세금보고 미비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현재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영문 명칭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를 변경하기 위해서 한인회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인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한인들은 느닷없이 한인회 총회를 통해 새로운 영문 명칭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 이 총회에 참석해 손에 '피'를 묻히려는 한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스럽다. 매년 정기총회를 소집해도 60여명이 모이지 않아 성원조차 이루 못했던 한인회다. 더구나 명분이 아닌 꼼수를 선택한 마당에 한인회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김경원 한인회장 인준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최소한 세금보고 문제를 떠안지는 않겠지만 세금보고 문제로 신뢰도가 추락한 한인회 물려받게 됐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53년도 선조들이 선택했던 영문 명칭 The Korean Society of Boston을 다시 찾는다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보스톤 한인회(뉴잉글랜드 한인회)의 뿌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톤 대학에서 Boston Korean Diaspora Project를 진행중인 다나 로버츠(Dana Roberts) 교수에 따르면 서두수, 고광림 씨 등이 보스톤 대학 마쉬 채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한인회를 만들었다. 한인회는 새로운 명칭이 아닌 잃어버렸던 한인회 역사를 되찾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인회 이사회가 남긴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고 싶다. 지난 2006년 이래 한인회는 세금보고를 충실히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비영리 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보스톤에 살았고 한인회의 무책임함을 수수방관했다. 적어도 IRS 파일 한 구석에는 Korean 이란 영문 명칭이 포함된 세금보고 회피의 불명예가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한선우 회장은 한인회비 1천명 납부 운동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개인당 100불씩 1000명만 모이면 10만불이다. 오늘 필자는 개인체크에 받을 사람의 이름은 비워둔 채로 금액 $100을 적었다. 만약 그 누구라도 저 불명예 파일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면 기꺼이 이 체크를 발송할 것이다. 새로운 한인회장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두번째 선물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탈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패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경원 39대 보스톤 한인회장 체제 출범

2일 한인회장 이취임식 열려

김경원 관장이 39대 보스톤 한인회장으로 인준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김경원 한인회장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다. 김경원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2시간에 거친 열띤 논의 끝에 9대 1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인준돼 39대 보스톤 한인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한인회 이사회는 또한 기존의 한인회 영문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영문 명칭을 선택, 새롭게 출발하는 김경원 회장의 짐을 덜어주었다. 38대 이전의 한인회에서 발생한 세금보고 누락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교적 부담없이 새출발을 하는 김경원 회장 체제이지만 앞으로 한인회 명칭 변경과 회칙 제정을 위한 총회 인준 절차는 직접 39대에서 완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선우 전 회장은 "이사진들이 절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잉글랜드 한인회(약칭 보스톤 한인회)는 한선우 38대 회장과 김경원 39대 한인회장 인준자의 이취임식을 오는 2일 오후 6시 렉싱턴 월뎀 스트릿 소재 엘크스 클럽에서 개최한다.

김경원 한인회장 인준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금 보고) 문제가 있는 한인회는 정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한인회를 위한 총회를 열어야 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칙을 다 뜯어 고치기에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의 회칙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원 인준자는 이사회의 인준과는 별도로 5월 2일자로 출범식을 기획해 일부 인사를 초청하는 듯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그는 "2주 전에 안병학, 남궁연, 김영곤 이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회장직을 수락했다"며 "(이사회가) 인준하기까지 기다리느니 바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사진 왼쪽부터) 강승민 사무총장, 남궁연 이사, 유한선 이사, 유영심 이사, 장수인 한인회 부회장, 한선우 한인회장, 이경해 이사, 한순용 이사, 한문수 이사, 최한길 이사, 안병학 이사

기존 한인회 버리고 새로운 영문 명칭, 텍스 아이디 신청

▸▸1면에 이어서

서는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은 져야 하지만 현 이사회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4월 말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해 온 한선우 회장의 한인회는 막을 내리고 김경원 39대 한인회장의 체제가 5월 2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새 출발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yoo9146@bostonkorea.com

이사회가 끝난 뒤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사회,왼쪽부터 강승민 사무총장, 남궁연, 유영심, 유한선 이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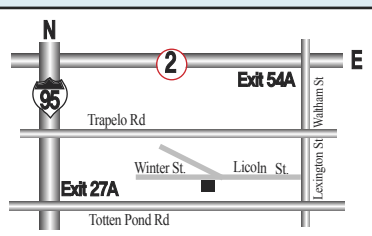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4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현 한인회 세금 보고 문제 "풀 능력 안된다"

한선우 회장, 안병학 이사 인터뷰
새로운 명칭과 텍스 아이디
"비용, 절차상 가장 좋은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인회 이사회가 새로운 명칭으로 한인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우번 소재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두 시간에 걸쳐 세금 보고 문제와 김경원 회장체제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 때론 고성이 오가기도 했던 회의가 끝나고 일부 이사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왔다.

보스톤코리아는 38대 한선우 회장과 안병학 이사와 일문일답을 나누어 보았다.

〈한선우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사회의 표결 결과는?

10명 이사 중 9대 1로 (김경원 관장이 39대 한인회장 인준 안건이) 가결됐다.

문제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결되나?

이사회에서 결정 나기를 이게 절차나 비용의 문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우리(이사회)가 한인사회에 시인을 하되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든 장치를 만들어 이끌어 나가야겠다. 새로운 아이디(영문 명칭)를 내고 비영리단체 자격을 받아서 39대 한인회로 이어가게 된다.

다른 문제점은 없나?

(현 한인회에) 나중에 도덕적인 문제라던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

다음 한인회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우리가 풀 능력이 안된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한선우 38대 한인회장이 이사회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결국 미지수로 남는 것인가?

해결이 안됐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영문 명칭의 한인회가 출범하면 회칙이 변경되야 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회칙 변경 절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원래는 우리(현 이사회)가 만들어서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김경원 관장이) 당장 5월 2일 취임식을 한다니까 새로운 회장과 얘기해서 (해결해야 겠다).

연계성에 대한 문제는 없나?

아까 (이사회 중 김경원 관장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새로운 한인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김 관장이) 39대 한인회장로 취임하는 것이다. 다만 텍스 아이디 문제가 복잡하니까 새로운 아이디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병학 이사와의 일문일답〉

새로운 명칭의 한인회는 회칙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이사회 의결, 총회 인준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사회에서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는 (어렵다). 신임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신임회장이 물론 (영문 명칭을) 만들게 되겠지만 현 이사진과 회장이 함께 도와 텍스 아이디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얘기됐다.

한인사회가 2006년 이후 세금 보고를 못한 데에는 각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았다. 그 문제를 일일히 다 해결하는 것이 2년 임기의 한인회장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 점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책임있게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한인회의 새로운 명칭을 위한 이사회 의결, 총회 인준의 절차는 신임회장이 하게 되는가?

아니다. 신임회장한테 전제척으로 맡길 수는 없고 절차상 문제의 과정을 현 이사진과 회장이 신임회장을 돕게 된다. 일정을 6개월 정도 유보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신임회장과 현 이사진이) 잘 하겠다는 말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가정의 달 맞아 콩코드 한국문화전시 개최

2일 리셉션, 붓글씨 쓰기 등 어린이 프로그램 마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되는 콩코드 한국문화전시가 오는 2일 토요일 콩코드 도서관에서 리셉션을 갖는다.

이날 리셉션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윤미자 전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장이 진행하는 붓글씨 쓰기, 종이접기, 한복 입어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별히 뉴욕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수묵화 화가 닐 렌드레빌이 이날 보스톤을 방문해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 한달간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신라금관 등의 각종 유물 복제품, 한복, 닐 렌드레빌(나노열) 씨의 수묵화를 포함한 한국 미술품이 전시된다.

한편, 가야금 연주와 무용이 펼쳐지는 한국문화콘서트가 오는 16일 토요일 엄브렐라 아트 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무료 입장이다.

전시일정

일시: 2015년 5월 2일 토요일 ~ 31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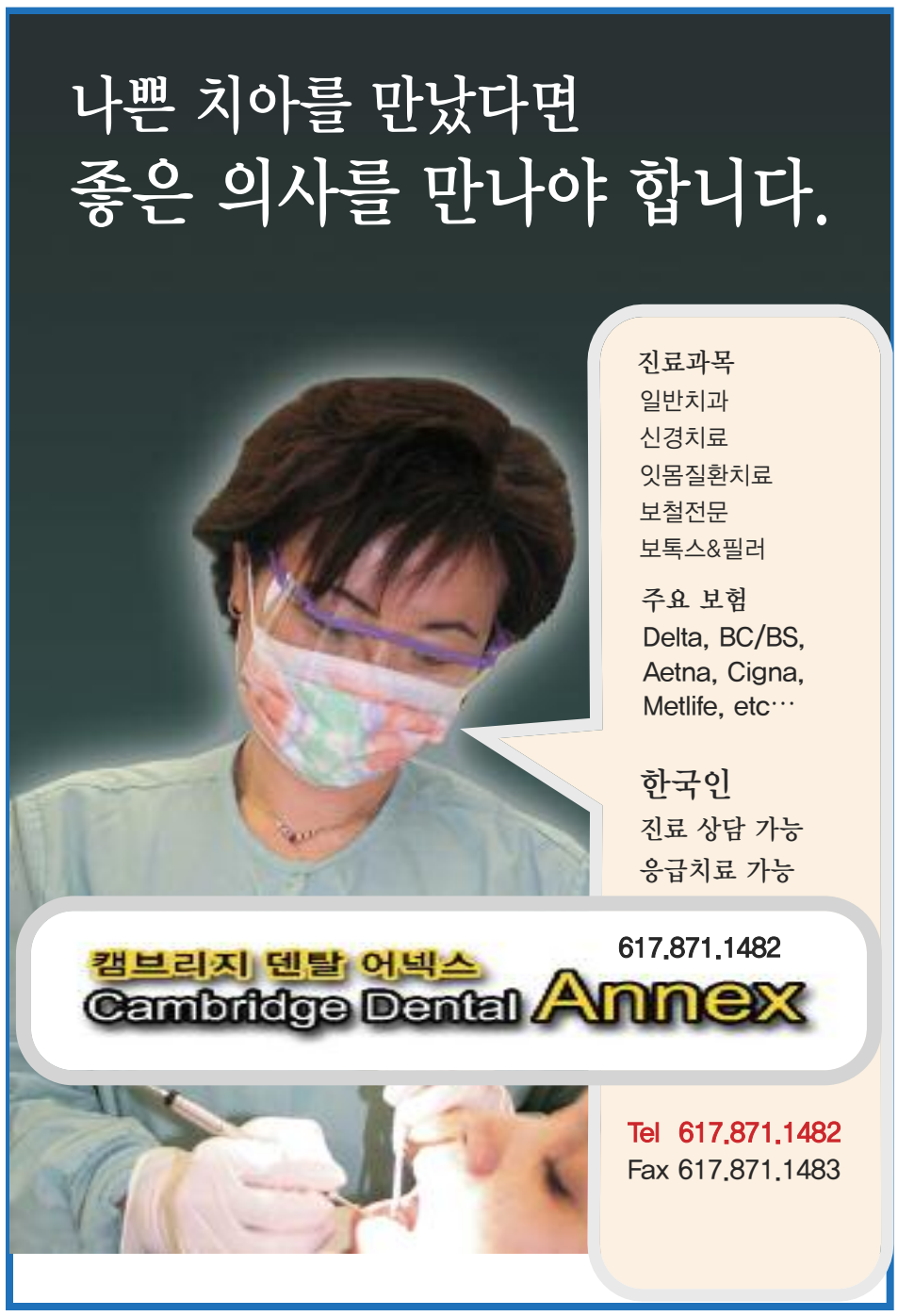
장소: 콩코드 도서관(129 Main St, Concord, MA 01742)

한국문화 콘서트 일정

일시: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엄브렐라 커뮤니티 아트 센터(40 Stow St, Concord, MA 01742)

dyoo9146@bostonkorea.com



피아니스트 이은혜, 26세 고든 칼리지 최연소 교수 임용

4일 브람스 피아노 콘서트 한인 청중에 첫 인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인 피아니스트 이은혜 씨가 고든 칼리지(Gordon College) 최연소 교수로 임용돼 화제다.

로체스터 대학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은혜(26) 씨는 고든 칼리로부터 오는 8월부터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씨는 박사과정 3년차 되던 해 이미 고든 칼리지의 음악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해왔었다.

이은혜 씨는 "나를 믿고 교수로 일하자고 제안한 고든 칼리지에 감사하다" 며 "학생들과 세대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보다 잘 이해하며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는 수줍은 소감을 전했다.

이 씨는 해밀턴 음악고등학교를3년 반만에 졸업하고 UCLA에 수석 입학했다. 대학에서도 피아노 연주와 작곡의 복수전공 과정을 3년만에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받으며 뚝딱 해치웠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피바디 음대에서의 석사 과정도 전액장학금으로 마쳤다.

이은혜 씨가 누구보다 빨리 공부를 마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중학생 때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건너와 이민생활을 시작한 이 씨는 "가난한 가정환경이 (나를) 빨리 달리도록 채찍질한 것 같다" 고 털어놓았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이은혜 씨의 음악적 재능을 꾸준히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다. 성악과 합창 지휘를 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 씨가 초등학생일 적부터 다양한 악기와 작곡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무대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 씨는 밝혔다.

오랜 시간 탄탄한 내공을 다져온 이은혜 씨는 오는 가을 학기, 학생들과의 만남에 마음이 설렌다고 전했다. 이 씨는 "학생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 이라며 "조금 일찍 시작하는 만큼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피아니스트 이은혜의 브람스 콘서트가 오는 4일 보스톤 소재 트레몬트 템플 침례교회 홀에서 열린다.

아이티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동부 투어 콘서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고든 칼리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이은혜 씨의 브람스 듀오 연주회가 오는 4일 보스톤 소재 트레몬트 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브람스 자유를 맛보다' 라는 주제로 '러시아 추억' 과 '헝가리 무곡' 등의 흥겨운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혜 씨는 동료 피아니스트 김주혜 씨와 듀오를 펼치게 된다.

이은혜 씨는 "정식으로 보스톤의 한인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며 "딱딱하고 무겁다는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깨는 '고삐 풀린 브람스' 를 연주할 생각에 가슴이 뛴다" 고 전했다.

이날 콘서트는 무료 입장이며 문의는 이은혜 씨(213-281-1217)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트레몬트 템플 침례교회 컨버스 홀(88 Tremont Street, Boston, MA 02108)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언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묵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꽃놀이 어디로 갈까? 보스톤 봄 명소 소개하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유독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보스톤에도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다. 개나리와 목련, 벚꽃이 드디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보스톤을 화려하게 수놓는 봄꽃은 5월과 6월 동안 흐드러지게 만개한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인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목련과 벚꽃, 튤립과 수선화, 진달래가 한창이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장미와 라일락, 모란 등이 핀다. 따사로운 오후, 가족 나들이 또는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 봄꽃 구경을 하러 갈 수 있는 보스톤의 명소를 소개한다.

▶보스톤 퍼블릭 가든

51 Beacon St, Boston, MA 02108

cityofboston.gov/parks/emerald/public_garden.asp

도심 속 푸른 공원, 보스톤 퍼블릭 가든(Boston Public Garden)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다. 꽃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봄과 여름 동안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벚꽃은 지금이 한창 예쁠 시기이며 5월에 접어들면 만개한 튤립으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또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스완 보트(Swan Boat)는 보스톤 퍼블릭 가든의 명물이다. 재미있게도 겨울 동안 프랭클린 동물원에서 지냈던 백조 한 쌍이 호수로 돌아와 스완 보트와 함께 호수 위를 유영한다. 4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행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6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다). 탑승료는 일반 $3이며 15세 이하 어린이는 $2이다.

▶하버드 수목원 아놀드 아보레텀

125 Arborway, Boston, MA 02130

arboretum.harvard.edu

617-524-1718

보스톤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리는 하버드 수목원 아놀드 아보레텀(Arnold Arboretum)은 수천 종류의 꽃 식물이 자라며 특히 176개 종의 라일락을 보유해 북미주 최고의 라일락 컬렉션으로 손꼽힌다.

가족 나들이로 안성맞춤인 아놀드 아보레텀은 특별히 오는 5월 10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하버드 수목원은 라일락 선데이(Lilac Sunday)를 개최한다. 라일락 컬렉션 투어가 45분마다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며 수목원 회원에게는 라일락 한 송이가 증정된다. 라일락 선데이 개장시간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켈러허 장미정원

73 Park Drive, Boston, MA 02215

emeraldnecklace.org/park-overview/back-bay-fens

켈러허 장미정원(Kelleher Rose Garden)은 백 베이 펜스(Back Bay Fens)에 위치한 정원으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5월부터 꽃봉오리를 피우는 장미는 6월부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만점이다.

펜웨이 빅토리 가든(Fenway Victory Garden)은 장미정원 옆 또 다른 볼거리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500개 이상의 아기자기한 정원은 다양한 꽃 뿐 아니라 딸기, 라즈베리, 토마토 등이 재배된다. 벌집 구경도 재미난 구경거리다. 일반인이 정원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정원을 따라 산책로가 나 있어 이런저런 볼거리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다.

▶찰스 강

찰스 강변을 따라 활짝 핀 수선화, 미나리아제비, 달맞이꽃 등을 야생화를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활짝 핀 봄꽃을 구경하며 산책이나 자전거, 카약을 즐기는 것도 보스톤의 봄을 만끽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 739 2888 / www.utsboston.net

공 인 회 계 사

정 진 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한국 농어촌 초교 방과후 영어교사 모집합니다

영주권자 이상 또는 8년 이상 체류자 대상
월 150만원 장학금 및 경비, 숙소 제공

대니얼 고 보스톤 시장 수석보좌관이 시민협회 만찬에 참석해 강연을 전달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대한민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영어교사 프로그램이 미주내 거주하는 장학생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마감일은 오는 5월 8일 금요일이다.

장학생은 한국 농산어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교사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매달 150만원의 장학금과 입, 출국 지원금, 원룸 형태 숙소, 외국인유학보험, 정착금, 한국문화체험, 휴가 등이 제공된다.

장학생 신청 대상은 영어권 국가 영주권자 이상으로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이다. 영주권 미취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초, 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체류기간이 8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약 210명이다.

지원 서류는 TaLK 웹사이트(talk.go.kr)에서 제공하는 지원서(자기소개서, 건강보고서 포함)와 수업지도안, 성적증명서 원본, 여권사본, 범죄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온라인 접수 시 로컬 오피스(Local Office)를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총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된다.

TaLK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talk.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총영사관(kcgboston@mofa.go.kr 또는 617-641-2830)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프리카 고아 합창단 보스톤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프리카 고아 합창단인 와토토 어린이 합창단(Watoto Children's Choir) 오는 13일 월요일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교회에서 합창 공연을 갖는다.

미동북부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보스톤을 방문하는 와토토 어린이 합창단은 '오 왓 러브(Oh What Love)'라는 주제로 춤과 합창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아이들의 희망과 열정을 담아낸 이번 공연의 테마는 아프리카 폐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를 담아낸 작품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은 무료다.

와토토의 창시자인 개리 스키너 목사는 "단순한 구제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 번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제로 수 천명의 고아였던 아이들이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펼치는 와토토 어린이 합창단은 학교나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방문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영국의 버킹엄 궁전 등에서도 특별한 무대를 펼치기도 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13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북부보스톤교회(244 Lowell Street, Andover, MA 01810)

bostonkorean@hotmail.com

(좌)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전하는 아베 총리 (우) 연설 후 후문에서 아베 총리를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한인학생 질문에 아베 "마음 아프다" 회피

▸▸1면에 이어서

만 과거사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현재 여성 인권을 위해 UN 우먼에 $1,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세기 전쟁 등으로 발생한 여성 인권의 유린은 21세기에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날 하버드 학생들의 시위를 기획한 최미도 학생과 클라우디앤 초(Claudiane Cho)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아베 총리는) 이전의 연설에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할 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날 누구보다 속이 타들어갔을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였다.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온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거짓말은 집어치우고 진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털어놓았다.

이용수 할머니는 함께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보며 "분했나보다"며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 덕분에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오전 8시부터 장소에 나와있던 이용수 할머니와 시위대는 "아베는 사과해야 한다(Abe must apologize)", "당신의 거짓말이 우리를 두 번 죽인다(Your lies are killing us twice)"라고 외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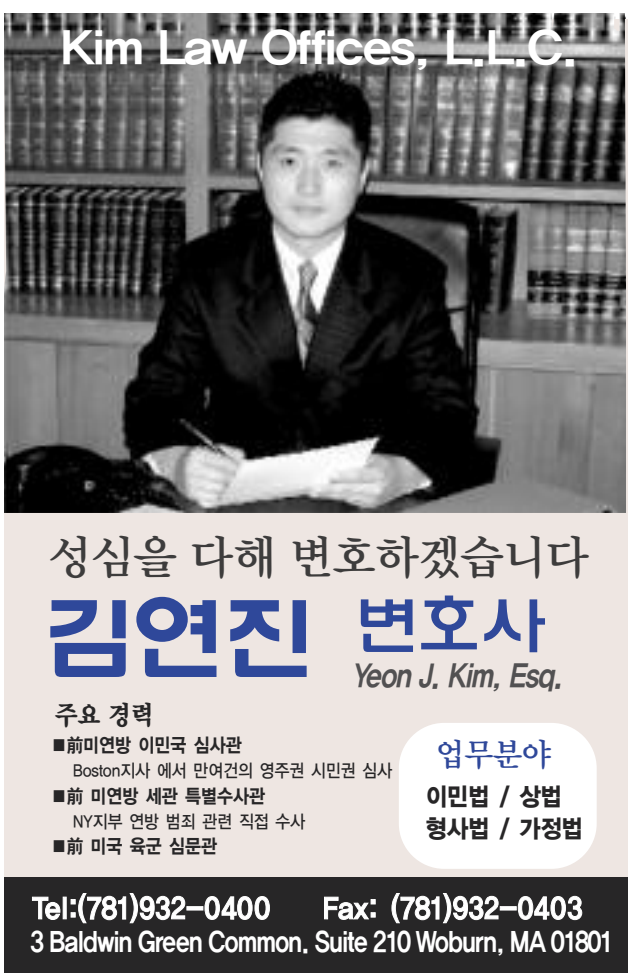
하지만 삼엄한 경비 속에 아베 총리는 이들을 뒤로 하고 강연장을 떠났다. 관심을 갖던 언론 관계자들과 참석자들도 곧 자리를 떴지만 할머니를 포함한 50여명의 시위대는 끝까지 '아리랑'을 부르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시위에 참가한 한선우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참가했다"며 "역사를 다시 쓰는 것도, 고치는 것도 허용해선 안된다"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100여명이 몰린 이날 시위에는 하버드 학생들과 뉴욕 시민참여센터,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의 원전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반대하는 미국인 환경 단체도 눈에 띄었다.

아베 총리는 하버드 연설을 마친 후 이날 오후에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팅을 위해 워싱턴 DC로 떠났다.

dyoo9146@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글짓기 대회 성황

김진아, 남소은, 이혜린, 서가은 학생 작문부문 대상
조현상 학생 번역부문 전체 대상 수상

지난 18일 통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글사랑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 제8회 교내 작문대회 및 번역대회가 지난 4월 18일 열려 총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작문대회에는 기초 3-4부터 중급과정까지의 학생들이 작문대회에 참여하고, 중급 및 고급과정의 학생들이 번역대회에 참가해 각자의 글솜씨를 뽐냈다.

작문 부문 대상은 흥부반의 김진아 학생과 신라2반의 남소은 학생, 백제2반의 이혜린 학생, 고구려반의 서가은 학생이 각각 1, 2, 3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번역 부문의 전체 대상은 금강반의 조현상 학생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2일 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전체 대상을 받은 학생들의 글과 기타 수상 소식은 곧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에 게재된다.

한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16일 개교 40주년 4 번째 기념행사인 '제 2회 독도자랑대회'와 '독도 삼행시 대회 및 역사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국적과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도 삼행시(또는 오행시)의 참가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2일까지 ksneusa@verizon.net로 접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문수사,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법요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웨이크필드 소재 문수사(도범 스님)에서 오는 5월 24일 일요일 봉축법요식을 갖는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이날 행사의 1부는 봉축 법회로 열리며 2부로는 관불의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봉축법요식 행사에 연등 접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은 주지 스님(781-439-8383)에게 문의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문수사 큰법당(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bostonkorean@hot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위해정보과는 식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현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리포터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식품의약품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근무 경험자이거나 현지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주요업무 내용은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정보 수집 및 보고다.

미국에서는 총 5명을 모집하며 모집 마감은 오는 5월 20일 수요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해외정보 보고시스템(http://www.mfds.go.kr/food-info/index.jsp)에서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 문의는 mailkiju@korea.kr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25일 열린 보스톤 한인야구리그의 오후 경기에서 승리한 뉴잉글랜드 에이스팀

보스턴 한인야구리그 2라운드 경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5년 보스톤 한인야구리그의 제 2라운드 경기가 지난 4월 25일 토요일 체스트넛 힐 소재 캐시디 플레이그라운드(Chestnut Hill Cassidy Playground)에서 열렸다.

이날 1경기에서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 이하 MW)가 캠브리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 이하 CB)에 승리를 거두며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다.

이어진 2경기에서는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 이하 NEA)가 올스턴 슬래머스(Allston Slammers, 이하 AS)에 승리를 거두어 시즌 첫 승을 획득했다.

개막 이후 무서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MW가 1회 초 홈팀 CB에 선취점을 내줬으나 1회 말 공격에서 대거 6득점을 하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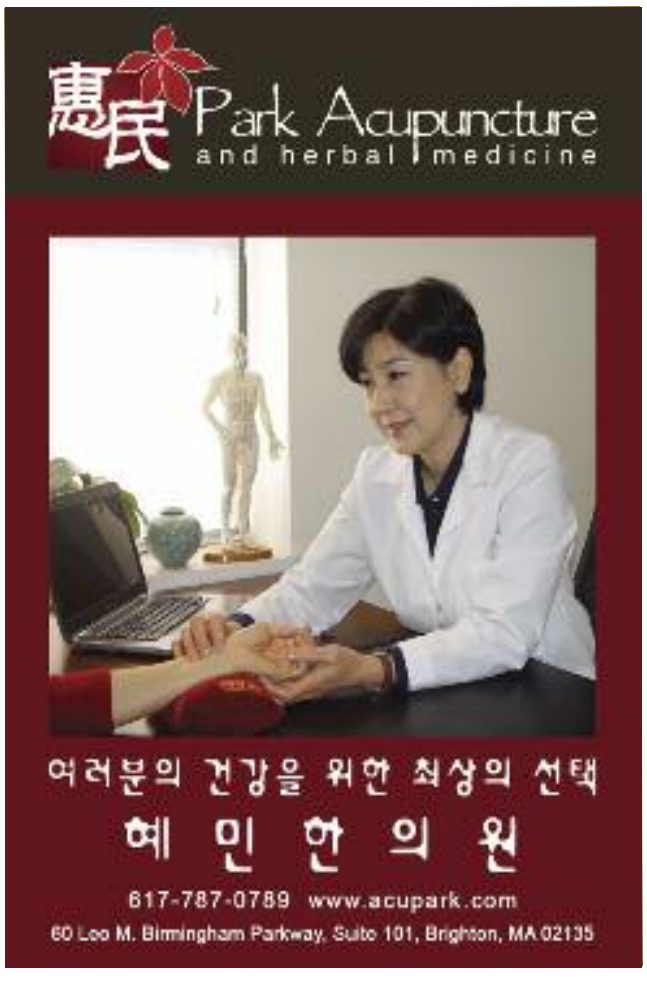
이후 MW가 이우주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장장 12안타를 몰아쳐 8득점을 추가한 반면 CB는 상대팀 투수의 막혀 3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최종 스코어는 12대 6으로 이번 경기의 수훈선수는 5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1자책)으로 호투한 황철중 선수다.

4회에 승부가 갈린 2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팽팽한 승부를 이어오던 AS 투수들이 흔들린 틈을 타 4회에만 10득점을 올린 NEA쪽으로 기울었다. AS는 총 6명의 투수를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흐름을 찾지 못했다.

양 팀 모두 매 이닝 득점을 올렸지만 출전선수 전원 득점을 기록한 NEA가 승리를 거뒀다. 최종 스코어는 24대 14로 수훈선수는 4타수 1안타 1볼넷 3득점 2도루를 기록한 권돈희 선수다.

bostonkorean@hotmail.com



윤장현 광주 시장, 정치인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시장' 되고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30년 넘게 안과의사, 활발한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윤장현 광주 시장에게 '정치인'은 다소 어색한 수식어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보스톤을 방문한 윤장현 광주 시장은 지난 4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보다 '사람 냄새나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수평적 리더십과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발언부터 인터뷰 후 핸드폰으로 찍은 찰스 강변의 벚꽃을 자랑하며 "이래봬도 내가 나름 사진잡가다. 작가 말고 잡가"라며 흐뭇해하는 모습까지 인터뷰 전반에 걸쳐 윤장현 시장의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듯했다.

다음은 윤장현 광주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홍보를 위해 보스톤을 방문한 윤장현 광주 시장이 보스톤대 토크콘서트를 앞두고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안과의사와 정치인은 거리가 다소 멀어보이는데 어떻게 큰 방향 전환을 시도하게 됐는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운명처럼 기회가 다가왔다. 시민운동가였을 때는 없었던 영향력을 갖게 되어 뿌듯할 때가 있기도 하다. 시장이 결정만 하니까 시청의 비정규직 청소부들이 정규직이 되더라.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이 되기 전부터 청년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시장이 되고 나서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직접 운영을 하도록 맡겼더니 자기들끼리 기획안을 만들고 예산을 청구하며 신이 났다.

시장 당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당시 상대편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었고 나는 처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보였다. 수직적 리더십을 지닌 많은 정치인과는 다르게 (나는)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한다. 이러한 비권위적인 면에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다.

'광주의 박원순'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며 시민운동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점을 꼽으라면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소셜 네트워킹이 탄탄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인 서울과 유니크한 역사를 지닌 광주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다름은 충돌되는 다름이 아니라 지역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어우러질 수 있는 다름이라고 생각한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홍보를 보스톤에 와서 하게 된 이유는?

대학생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170여개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축제다. 대학 도시인 보스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하버드 대학에서 대회를 홍보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보스톤의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꿈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도전은 청년의 특권으로 꿈을 좇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적인 파트너로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윤장현 광주 시장(오른쪽)과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보스톤대 학생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임형주 윤장현, 보스톤대 청년토크

윤장현 시장 일정으로 임형주 팬미팅 느낌 '물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보스톤을 방문한 윤장현 광주 시장과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지난 24일 보스톤 대학을 찾아 청년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50여명이 참석해 전날 하버드 행사에 비해 다소 단촐한 모임이 되었지만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기 위한 참석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팬클럽 회원이 참석해 팬미팅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강연을 통해 "도전은 청년의 특권"이라며 "성공의 잣대는 지위, 학벌, 돈이 아니다. 도덕 가치를 겸비한 성공 인생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강연을 이끌어나간 팝페라테너 임형주는 "세상에 사람이 100명이면 성공은 100가지여야 한다"며 "획일화된 사회의 기대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학생이 "예전에 광주 사람이라고 하니까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하더라. 3시간이나 걸어가야 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고 임형주 씨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냐"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윤장현 시장은 "부끄럽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소에 늦게 도착한 윤장현 광주 시장은 귀국 일정으로 일찍 떠났다. 이후 임형주 씨의 기부 활동, 음악적 성장 배경에 대한 개인 토크콘서트가 이어졌으며 행사의 끝으로는 참석자와의 단체 기념사진촬영이 이어졌다.

임형주 씨는 "마이크도 없이 진행한 가장 아담한 사이즈의 토크콘서트였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 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진통제 과다 복용 작년에 천명 이상 사망

처방전 통해 진통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후 헤로인 등 마약류에 중독되기 쉬워

진통제 계통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보건 당국은 작년에 1천명 이상의 매사추세츠 주민이 진통제 계통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2년보다 33%가 증가한 수치로 처방전을 통한 약물과 헤로인 등의 마약에 의한 사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2014년에 매사추세츠에서 600명이 진통제 계통의 약물로 사망했다는 것을 최근 확정 지었다. 이로써 기존의 사망자 408명에 더해 총 1,008명이 진통제 계통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작년에 사망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 보건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약물 과다 복용은)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처방전의 의약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베이커 주지사는 헤로인 중독자 5명 중 4명이 처음에는 합법적인 진통제를 통해 약물을 접하게 되고, 이후 점차 마약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2월에 16명으로 이루어진 특별팀을 구성하여 약물 중독과 치료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도록 지시했다.

보스톤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21세의 레베카 레일리는 "처음에는 처방전 약품으로 시작했지만 헤로인을 복용하기까지 너무나 순식간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일리는 처방전으로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17세에 처음으로 얻었다. 그녀는 당시에 아무 의사를 찾아가서 허리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고, 진통제를 먹어야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특히 로웰과 린 지역에서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급증했다. 로웰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2012년에 8명이었지만 2013년에 25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 전반기 6개월 동안 27명이 사망했다. 린에서도 2012년에는 21명이 사망했지만 2014년에는 첫 9개월 동안 34명이 사망했다.

jsi@bostonkorea.com

마이애미 해변에서는 무료로 썬크림을 사용할 수 있다

보스톤 시 썬크림 무료 제공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시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썬크림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맷 오맬리 보스톤 시의원은 지난 29일, 보스톤 시에 있는 220개 모든 공원과 놀이터에서 썬크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맬리 의원은 공원에서 썬크림을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썬크림 회사나 피부암을 연구하는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350만 명이 피부암 진단을 받고 있다.

오맬리 의원은 "납세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지지 않고도 보스톤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스톤이 앞장서서 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썬크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기의 소비자 가격은 210 달러다. 만약 보스톤에 있는 모든 공원과 놀이터에서 썬크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설치하면 약 4만 6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마이애미에서는 해변과 공원, 야외 수영장 등 50개 장소에서 무료로 썬크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 3월부터 설치했다. 마이애미는 피부암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는 민간 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무료 썬크림을 제공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Mother's Day Specials

가정의달 최고의 선물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2015년 5월 10일 (일) 까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에 백작약, 백출, 천궁, 황기 등 식물성 원료가 함유된 부드러운 맛의 상품으로 시럽상 제재로 휴대 및 섭취가 편리하도록 팩 포장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10% OFF 홍삼톤 골드
홍삼톤 마일드
화애락

6년근 홍삼을 최적의 조건으로 달여 그 진액만을 농축시킨 고순도상품으로, (주)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 홍삼상품입니다.

240g 홍삼정 구입시
30g 홍삼정 FREE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탐 브래디, 오바마 슈퍼볼 축하초대에 불참 구설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4-2015 슈퍼볼 챔피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23일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팀의 핵심인 쿼터백 탐 브래디가 이에 참석하지 않아 구설수를 낳고 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이자 지난 슈퍼볼 MVP인 탐 브래디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에 자신의 가족과 한 사전 약속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구단 측은 밝혔다.

브래디가 이번 만찬에 참석했다면 이는 네번째 백악관 방문이다. 탐 브래디는 지난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던 당시 백악관을 마지막으로 세 번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브래디 외에도 지난 겨울 패트리어츠를 떠난 패트리어츠의 핵심 수비수 빈스 윌포크가 이번 방문에 불참했다. 반면 데럴 레비스와 스티븐 리들리는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행사에 참석했다.

보스톤 해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브래디는 "자유시간이 너무 적어 그 중 하루를 (백악관 방문에) 사용하기 싫었다"고 밝혔다. 세번이나 방문한 백악관이었기에 새로운 게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불참은 여전히 매끄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의 불참이 과거 백악관 대변인 조시 어니스트의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코멘트로 인해 촉발됐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겨울 공기압이 낮은 풋볼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디플릿게이트'로 인해 탐 브래디는 어설프게 자신을 변호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야만 했었다. 이에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런 브래디를 풍자했었던 바 있다.

"수년간 내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쿼터백인 탐 브래디의 자리를 꿰차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오늘로써 그가 내 자리(백악관 대변인)를 차지해도 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브래디의 기자회견을 풍자하며 조크를 던졌었다.

그러나 이 같은 농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받아 넘길 수 있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왔던 브래디였기에 이 같은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팬들은 보지 않고 있다.

또 한편에서도 브래디의 부모가 50번째 결혼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지만 브래디의 부모는 1969년 4월 19일 결혼해 46년째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브래디는 23일 저녁 뉴욕의 애플스토어에서 애플워치를 차보고 있는 모습이 한 팬의 카메라에 담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슈퍼볼 축하 방문 자리에서 브래디의 불참에 대해서 언급했다. "(슈퍼볼) 경기내내 이 팀이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그가 바로 탐 브래디였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4쿼터에 면도날 같은 패스로 두번이나 터치다운 공격 드라이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일반적으로 축하연에 많은 농담을 준비하는데 이날은 농담을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면 '12개 농담중에 11개가 바람이 빠질(Fall Flat)것 같아서'"라고 뼈있는 디플릿게이트 농담을 해 참석한 패트리어츠 선수들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저녁 뉴욕의 애플스토어에서 애플워치를 차보고 있는 탐 브래디

ESPN의 칼럼니스트 스티븐 스미스는 "〈중략〉 간단히 말해 어떻게 참석하지 않을 수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다. 조금 정치적으로 말해 난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 당신(브래디)이 조지 부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듯 말이다"라고 직격탄을 쐈다.

탐 브래디는 지난 2004년 공화당원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꿨으며 2004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두연설에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연설에서 조지부시는 탐 브래디가 패트리어츠로서도 사회봉사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브래디는 2005년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패트리어츠 팬들은 탐 브래디에 대해 "쿼터백으로 응원은 하겠지만 더 이상 개인적인 지지는 않겠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hsb@bostonkorea.com

사진은 보스톤 서쪽에 있는 타운인 뉴튼 소재의 한 저택

매사추세츠에서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거주하는 도시는 보스톤과 뉴튼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 국세청(DOR)에 따르면 2012년 세금보고한 3백 30만명 중 총 1만 5천 499명이 1백만불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의 평균 연 총 소득은 약 3백 60만불에 약간 못미쳤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총 1만 3천 74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살고 있는 곳은 보스톤으로 1,698명이었며 뉴튼이 1,1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번째로 많은 곳은 웰슬리로 767명이었고 529명의 웨스톤, 442명의 브루클라인, 그리고 379명의 렉싱톤 순이었다. 드러난 것처럼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보스톤 서쪽 교외로 이 지역의 15개 타운이 100명 이상의 백만장자를 기록했다.

보스톤 북쪽 교외 도시 중에서는 윈체스터가 266명으로 최고를 차지했으며 앤도버가 244명, 마블헤드가 157명, 노스 앤도버가 1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구 7만7천 300명의 도시 로렌스는 개인 평균 소득이 1만 2천불에 불과했고, 9만 1000명의 인구를 가진 린의 경우 개인 평균 소득이 1만 8천불에 불과했다. 이들 두 도시는 연평균 소득 1백만불 이상의 백만장자가 3명 이하에 불과했다.

보스톤 남쪽으로는 힝햄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하셋이 129명으로 두번째 많은 백만장자 소득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불 이상 소득자 중 가장 높은 평균소득을 낸 도시는 노우드(10.9밀리언)였고, 31명의 백만장자가 사는 그로톤(5.9밀리언)이 두번째, 85명의 백만장자가 사는 셔본(5.6밀리언)이 세번째, 그리고 199명의 백만장자가 사는 웨이랜드가 네번째(5.5밀리언), 그리고 529 백만장자가 사는 웨스톤(5.4밀리언)이 다섯째였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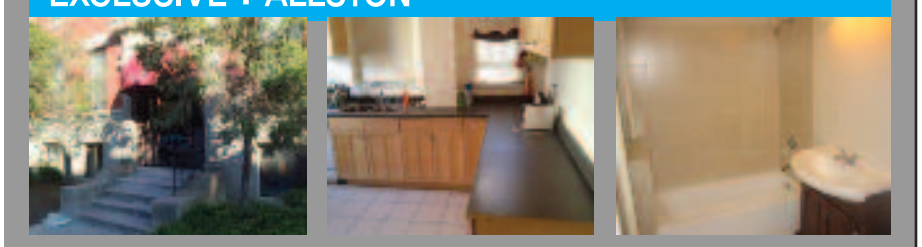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6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6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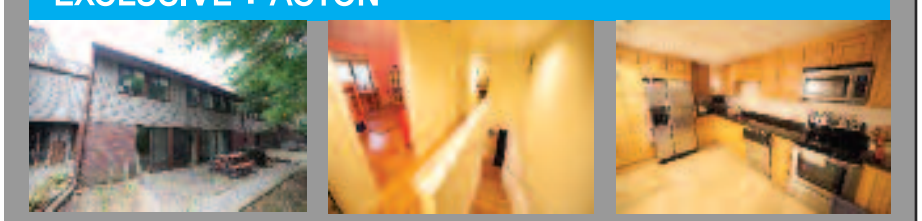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a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렁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볼티모어 약탈, 폭동 진압 위해 통행금지 및 주방위군 동원

점차 격화되는 폭력시위에 대항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 방위군 동원령을 내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볼티모어 시에서 폭력 시위와 약탈이 횡행하면서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가 27일 주방위군을 소집했으며 볼티모어 시는 28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볼티모어 시에서 경찰의 과다한 폭력사용으로 척추 뼈가 부러져 사망한 25세의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 후 폭력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이 부상하고 약탈까지 횡행하자 이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폭력 사태는 27일 늦은 오후 볼티모어 북서쪽 몬도민 타운 소재 뉴 쉴로 뱁티스트 처지에서 2000여명이 모인 장례식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분노에 찬 일부 시위대가 병과 돌 그리고 콘크리트 조각을 진압복을 입은 경찰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일부 청년들은 경찰차를 둘러싸고 유리창을 부쉈다. 거리의 차는 불탔고 상점들 유리창이 박살나며 약탈이 시작됐다.

저녁 무렵까지 폭력시위는 이곳 저곳으로 퍼져갔으며 경찰은 27명을 체포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27일 저녁 볼티모어의 흑인 여 시장인 스태파니 롤링 블레이크는 밤10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28일 시작해 1주일 동안 발효시켰다.

주지사 또한 볼티모어 시의 요청에 따라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소집했다. 방위군은 현재 진압을 위해 이미 투입된 1천여명의 경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를 중심으로 에워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오늘의 약탈과 폭력은 결코 좌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항의 시위와 폭력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 사업체 그리고 경찰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강력히 성토했다.

볼티모어 경찰 또한 경찰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찰은 28일 아침 여러 갱단들들이 경찰들을 공격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는 "믿을만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경찰들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하면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캠퍼스가 위치한 메릴랜드 대학은 경찰의 폭력시위 경고를 받고 오전에 학교를 휴교했으며 각 몰들도 일찍 문을 닫았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게임을 연기했다.

고 그레이 군의 조사를 담당했던 자몰 브라이언트 목사는 장례식 후 다시 도시로 돌아와 평화를 호소했으며 일부 신도들을 파견해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볼티모어 북서부 외곽 몰에 모여들어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를 시작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졌다.

그레이는 지난 4월 19일 경찰 감금 상태에서 경찰의 과도 폭력으로 척추가 손상돼 결국 숨졌다. 볼티모어 시의 롤링 블레이크 시장 및 앤소니 배츠 경찰 서장 모두 흑인이지만 볼티모어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개선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볼티모어는 흑인이 다수인 항구도시이다.

hsb@bostonkorea.com

애플워치 '탭틱엔진' 부품에서 결함 발견됐다

애플 워치 '탭틱엔진' 부품 불량 발견 초기 생산 차질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지난 주 미국에서 스마트시계 '애플 워치'가 시판됐으나 손목을 두드리는 느낌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에서 불량이 발견돼 초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탭틱 엔진'으로 불리는 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두 곳 중 중국 선전에 있는 AAC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가 만들어 애플에 공급한 물량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장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애플은 또 다른 공급업체인 일본의 니덱 주식회사로부터 거의 모든 탭틱 엔진을 공급받고 있다.

WSJ는 이 상황을 잘 아는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해 이 때문에 니덱이 탭틱 엔진 생산을 늘리고 애플이 워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워치는 현재 공급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해 모델 대부분은 구입 가능 날짜가 6월까지로 밀려 있다. solatido@yna.co.kr

삼성, 스마트폰 판매 단독 1위 탈환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을 누르고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9일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삼성은 8천 320만대의 판매량을 올려 점유율 2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1%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애플이 1분기에 6천 120만대(점유율 18%)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데 그치며 1분기 만에 스마트폰 시장의 단독 1위로 복귀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작년 4분기 전세계 시장에서 나란히 7천45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며 판매량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ykhyun14@yna.co.kr

미연준 "금리인상 안 서둘러"…'합리적 확신' 설 때 인상

전문가들 9월 인상에 무게
일부에선 12월 설도 부상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 첫 인상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6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연준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이 아직 약하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첫 인상에 나서려면 3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지난 달 성명과는 달리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번 회의 때 금리인상을 배제하겠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담지는 않았다.

연준은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인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있을 때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첫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 정례회의 때마다 새로운 경제지표에 의존하겠다는 방침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최소한 9월 이후에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연준의 지침(가이던스)는 지난달 회의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만, 경제지표들은 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성명 발표 후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이 금리인상 시기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뒤가 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래인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12월에나 시작된다는 데 베팅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단기 금리선물(short-term interest-rate futures)은 약간 하락했다.

거래인들의 판단은 연준의 금리를 놓고 베팅하는 '연방기금금리선물'(fed funds futures)을 추적하는 CME 페드워치에 근거한 것이다.

금리선물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징하거나 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장래 일정 시점에서의 특정 금융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피닉스 파이낸셜 서비스의 웨인 카우프먼 수석 시장전략가는 "연준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건 우리도 안다"면서도 "다만, 당장은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행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는 연율 기준으로 0.2%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4분기 기록인 2.2% 상승보다 크게 둔화한 것이며,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0% 상승도 밑도는 수준이다.

연준은 미국 경제 성장이 1분기에는 부진했지만 2분기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겨울철에 성장이 둔화한 건 일시적인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연준은 지난달엔 성장이 다소 완만해졌다고 묘사한 바 있다.

연준은 고용에 대해선 지난달의 부진한 고용지표를 반영해 성장 속도가 완만하다며 지난번 성명보다 평가를 낮췄다. 또한 유후노동력(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little changed)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개선됐다"(improved)고 설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는 약간 변화가 있었다. 연준은 최근 유가가 약간 안정되고 달러화 가치도 변동이 완화됐다며 "인플레이션은 계속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난 번 성명에선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고 한 바 있다.

연준은 처음으로 비(非)에너지 수입품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이유로 달러 강세를 꼽았다.

연준은 6월 정책회의까지 최소한 2개월 동안의 경제지표들을 더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경기 전망을 내놓고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성명은 정책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acenes@news1.kr

아베, 미 상하원 연설서
미국에만 사과, 아시아국 외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일본 총리 사상 처음으로 나선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아시아 주변국에 대해서는 사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 희생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사과를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합동 연설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행동들이 아시아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러한 생각은 역대 총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2차 대전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기대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문구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 등 사과의 말을 결국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반면 2차 대전의 미국 전사자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사과의 표현을 전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의회 연설에 앞서 워싱턴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나는 깊은 회개(deep repentance)의 마음을 갖고 한동안 묵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해 2차 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미국인의 영혼에 깊은 경의와 영원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오바마 차이나' 28일 아베와의 백악관 만찬에 첫 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셸 오바마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해 제작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도자기 그릇(china)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8일 백악관 공식 만찬에 처음 사용됐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여사는 최근 국빈 만찬에 사용돼온 적색, 녹색, 청색, 황색과 구분짓기 위해 청색으로 장식을 한 "오바마 차이나"를 마련했고 하와이 카일루아 만의 바다 색깔에서 영감을 얻어 '카일루아 블루'(Kailua Blue)라는 이름을 붙였다.

카일루아 비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가족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11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320세트가 만들어졌다. 윌리엄 올먼 백악관 학예실장은 "현대적인 이고 생생한" 푸른색이 백악관 자기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카일루아 블루' 320세트의 가격은 36만 7000달러(약 3억 9269만원)이며 비용은 비영리 독립법인 백악관역사위원회가 관할하는 민간 펀드가 치렀다. 이 법인의 주 수입원은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품 판매이다.

'오바마 자기'는 만찬에서 옅은 푸른색 식탁보 위에 정렬된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되는 정상 만찬에는 약 200명이 초청됐다.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엔드리 홀은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벚꽃으로 장식된다. 1912년 일본은 벚꽃나무 3000그루를 워싱턴 DC에 선물했다.

메뉴는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아이언셰프'에 참가해 유명해진 모리모토 마사하루(森本正治)가 참여해 만들었다. 모리모토는 하와이에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참치 타르타르를 곁들인 시저샐러드, 미국산 와규(일본 소) 소고기, 두부와 두유로 만든 미국식 치즈 케이크 등이다. 건배주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의 고급 사케 '닷사이(獺祭)'가 선정됐다.

식탁에는 붉은 색 젓가락이 놓인다. 물론 포크와 나이프도 사용가능하다.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와인은 '모들레 패밀리 빈저드 피노 누아르(Morlet Family Vineyards Pinot Noir)'이다.

식사 뒤에는 일본의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저지보이즈(Jersey Boys)' 출연진들이 연주를 한다. 식탁은 벚꽃과 난초 등으로 장식된다.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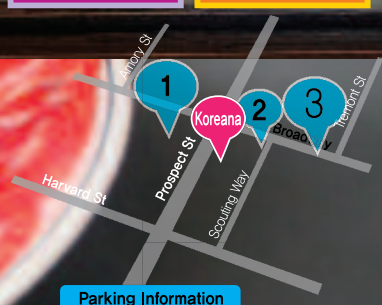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 BEST OF BOSTON 2001 |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g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타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여, 재보선 압승에 '환호 • 박수'…"김무성" 연호도

김무성 "감사, 감격"…
유승민 "상당히 놀라"

공무원연금 개혁
우려 분위기도 감지

4.29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29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뉴스1) 유기림, 박소영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악재 속에서도 4•29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3곳을 모두 거머쥔 새누리당에선 각 지역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웃음과 환호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 빨간 당 잠바를 입은 채 지도부와 당직자가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김무성 대표가 선거 상황실에 오기 전부터 당직자들은 삼삼오오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당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순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기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쯤 상황실에 도착해 미소를 띤 채 선거 추이를 주시했다.

김 대표는 서울 관악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인천 서구•강화군을 등 수도권 3곳의 승리가 확실해진 밤 10시45분쯤 당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직자들은 김 대표의 등장에 "김무성"을 연호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김 대표 역시 선거 결과가 만족스러운 듯 웃어보였다.

이들은 개표 방송에서 당선된 자당 후보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자 크게 박수를 치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선 확실을 확인한 뒤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세 곳 모두 승리이지만 서울 관악구을에서 27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뉴스1과 만나 "상당히 놀랐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예상 못하고 중간에 '성완종 사건' 때문에 박빙을 예상했다"고 가슴 졸였던 순간을 끄집어 내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방송 시청을 마친 뒤 각 당선인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현수막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교착 상태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 대표는 "오늘 새누리당의 3곳 승리보다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제 완수하는 일"이라고 했고, 유 원내대표는 선거 압승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여야 협상을 우려하며 말을 아꼈다.

girin@news1.kr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1ST - MAY 7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FRI/SAT/SUN ONLY 1/2/3 ONLY
Atualfo/ Champagne Mango 아툴포/샴페인 망고 box $11.99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7.99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lb. $5.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lb. $6.99
FROZEN JEJU Yellow Croaker 제주 황금빛 참굴비 10cnt/pkg. $12.99
FROZEN Cooked Whole Clams 냉동 백합조개 1 lb./pkg. $2.99

FRI/SAT/SUN ONLY 1/2/3 ONLY
FRESH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OMEGA 3 + Vitamin D NO HORMONE GMO FREE NO Antibiotic lb. $5.99
FROZEN SANFORD Half-Shelled Mussels 반깐 홍합 2 lbs./pkg. $7.99
FROZEN 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1 lb./pkg. $2.99
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5.99
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 라면 4.2oz. x 16ea./box $10.99

KWANG 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9.99
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 소스 16.7fl.oz. $2.99
주말시식코너 FRI-SUN SAMPLING EVENT K TOWN Bibimbap/ Japchae 케이타운 비빔밥/잡채 9.87 - 10.86oz. $3.99
주말시식코너 FRI-SUN SAMPLING EVENT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1.76 lbs. $9.99
JINYANG Canned Boiled Red Bean 진양 빙수용 팥 16.75oz. 2$5 ea./for
DANYA Japanese Style Noodles Somen 단야 소면 3 lbs. $3.99

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ZOLA Acai Juice 조라 아카이 주스 32fl.oz. $5.99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선인장 꿀가루 1 lb. 2$5 ea./for
INCENSE Aqua Jug 인센스 트라이탄 아쿠아 물병 1.3L/ea. $7.99
PRODUCT OF KOREA Flower Open Bathroom Slippers 한국산 욕실화 (국화) All Colors/Pair $2.99
ZOJIRUSHI Elec. Gourmet Roaster 조지루시 전기 생선구이기 EF-VSC40/ea. $109.99

새누리 3곳 승리 '압승'…새정치 광주도 잃고 '참패'

새누리, 성남중원 신상진 •
관악을 오신환 •
서구강화을 안상수 '3석 획득'

새정치, 광주 서구을까지
무소속 천정배에 내주고 '0'

김무성, "국가 미래
준비하라는 국민명령"

문재인, 30일 입장표명

(서울=뉴스1) 김현, 김유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진행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을 모두 가져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선거구 4곳 중 한 곳에서도 승리를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기반'인 광주(서구을)에서조차 무소속 후보에 패하며 참패를 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실상 개표가 마무리 된 29일 밤 11시50분 현재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던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52.37%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29.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제2의 이정현'을 기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내던 정승 후보를 박탈해 내세웠지만, 지역주의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정 후보는 11.1%의 득표율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에선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55.9% 득표율로 정환석 새정치연합 후보(35.6%)를 20% 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따돌렸다.

서울 관악구을도 개표가 끝난 가운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43.9%를 득표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34.2%)를 9.7%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새누리당이 27년간 한 번도 깃발을 꽂지 못한 관악을에서의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야권 분열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는 2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단순 합산하면 54.4%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새정치연합이 텃밭을 내준 것과 달리 여당의 강세 지역인 인천 서구강화군을에서는 새누리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했다.

개표가 99.84% 진행된 현재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54.11%로 신동근 새정치연합 후보(42.85%)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광주뿐 아니라 '텃밭'으로 분류돼 온 서울 관악을마저 새누리당에 내주면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치른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천정배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신당 창당 등 야권 내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당내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완종 파문으로 여권에 몰아닥친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둬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성완종 정국이 더 이상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역점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들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승패가 분명하게 엇갈린 재보선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과는) 박근혜정부 3년차에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이자,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국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투쟁정치를 멈추라는 뼈아픈 질책"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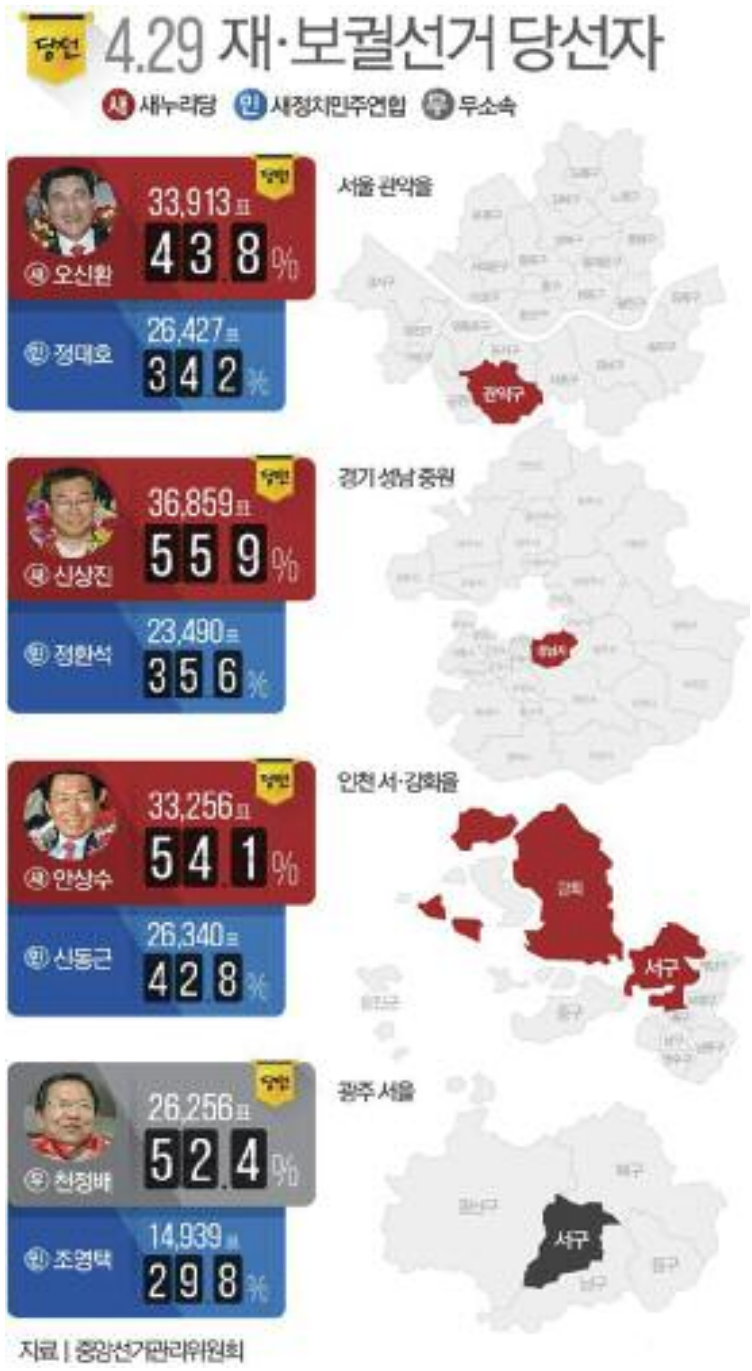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의 결과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다"면서도 "선거 결과가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를 덮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표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정책조정회의 참석할 예정이어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석 분포(재적 298명)는 새누리당이 157석에서 160석으로 늘고, 새정치연합은 130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무소속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 등 2명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3명으로 늘었다.



이번 재보선 4곳 중 옛 통합진보당 의석이었던 3곳 중에서 2곳을 새누리당이, 1곳을 무소속이 가져간 셈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의원 신분을 갖게 되며, 임기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민심 대변 못해 송구…절체절명 각오로 다시 시작"

"더 크게 개혁하고 통합하겠다"..
"선거결과, 여 면죄부 준 것 아냐"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4•29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 시련을 약으로 삼겠다"면서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이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며 불법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되풀이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ys4174@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책임 진료

원장 윤창 교수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천정배 "총선에 광주전역 인물 모아 출마"…호남신당 가능성

"좋은 인재 모아 확실한 비전 제시해 새정치와 경쟁하고파"

"문 대표, 문제의 본질 파악 못해 치열한 대처 미흡"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 천정배 의원은 30일 "내년 총선 때는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광주전역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잘 모아 함께 출마할 생각이다"며 호남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당까지 제가 만들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좋은 인재를 모아서 확실한 우리가 비전도 제시하고 세력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페어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며 "그래서 광주시민들이나 가능하면 호남의 전 남북까지 합친 호남에서도 그저 공천자만 세워두면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이번에 바로 어제 선거에서 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이 경쟁체제를 통해서 야당이 변화하고 쇄신되고 또 야권의 힘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같은 탈당파인 정동영 전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모임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합류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정치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의 호남에서의 일당 패권 독점구조를 깨뜨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분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비전의 면에 있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진보, 또 확고한 개혁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좀 쓴소리를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좀 더 치열하게 정말 심각하게 대처를 못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ptj@news1.kr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구을에 당선이 확정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29일 광주 서구 금호동 후보사무소에서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복귀 프로젝트 실패한 정동영…신당도 물건너 가나

야권 분열 거센 비판 받을 듯… 국민모임 신당 창당 동력도 사실상 상실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8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의 한 마트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 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정동영 후보가 4 · 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한 원내 복귀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 후보는 29일 4 · 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지역 개표결과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차례로 밀리며 3위를 하는데 그쳤다.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시민사회 및 재야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 후보는 고민 끝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번 낙선으로 차기 정치 활로를 찾는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한 차례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했고 당을 떠나 지역구를 옮기면서까지 재보선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만큼 당분간 정치권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정 후보에게 제기될 거센 비판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3위에 그치면서 야권 분열이라는 비판을 온 몸으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선거전 내내 정부 여당 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각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물귀신 전략을 펼쳤다는 비난도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관계자는 "정 후보를 10%대로 묶을 경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낙선이 확정된 뒤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들을 상대로 "저의 부족과 한계로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곳에서 뜻을 받들지 못했다는 점은 저의 한계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차기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 후보도 사실상 차기 정치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권 분열이라는 비판도 정 후보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 후보는 이번 재보선 출마를 통해 원내 복귀와 신당 추진 등 다양한 포석을 노렸다"며 "그러나 낙선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던 국민모임에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모임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 진출에 성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진보진영 개편에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같은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모임은 현재 인재 영입을 놓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 후보의 낙선으로 인재 영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세균 국민신당 창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 후보의 패배가 확정된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정 후보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쉬운 결과를 가져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 잠정합의

(서울=뉴스1) 김현, 이정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선거법심사소위)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잠정 합의했다.

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선거법심사소위는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여부 등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위 위원 위촉과 관련해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안은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중앙선관위는 획정위 설치 30일 전까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로부터 각 6명씩 획정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그 명단을 국회에 통지하고, 여야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부적절 인사 후보명단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6.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573.8880
SeoulFoodBoston.com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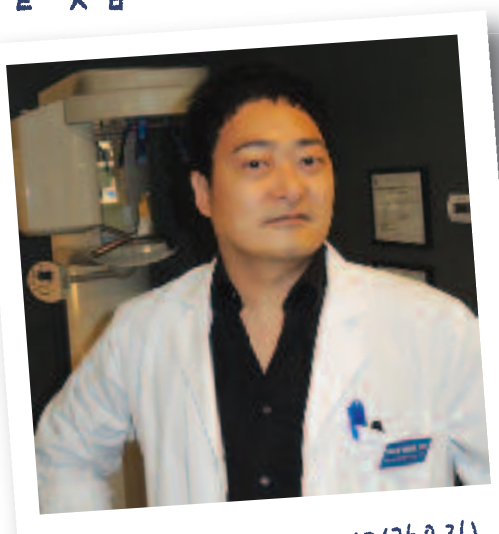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헌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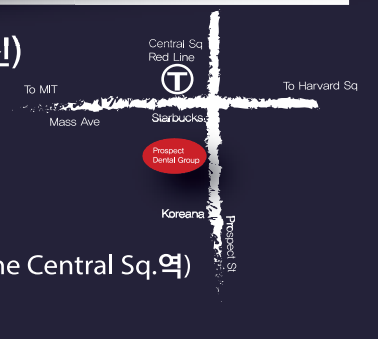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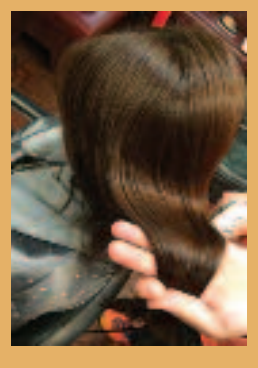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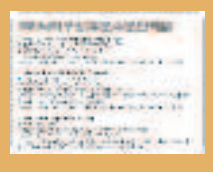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탈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어,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미일동맹 강화 • 중일 실리외교…고립되는 우리 외교 어찌하나

아베 미 의회 연설 '진정성 사과' 기대난망.. '진정성 프레임' 제고론 제기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미일간 '밀월관계'가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군사동맹으로 굳어지고, 중일관계 또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만이 '진정성 프레임'에 갇혀 고립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미일관계는 28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신 군사동맹'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1997년 기존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개념의 표현은 삭제됐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행동'단계의 경우 양국 정부는 억지•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시아 회귀정책'을 통한 중국 견제를 적극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18년 만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한미일 3각 동맹보다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중국 견제 카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 및 집단자위권 행사의 명분을 얻어냈고, 미국은 유사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미•일 연합군 출병'을 명문화하는 실리를 취한 셈이 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토•과거사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 또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국 외교를 고립 위기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가지며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이를 예상하지 못한 외교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실리외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좁혀오는 포위망에 맞서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선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외환보유고를 앞세운 '선경후정(先經後政•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는 뒤로 물린다)' 전략을 구사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강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 정상들은 다음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불참할 예정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한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 양국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외교만이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배상 등 진정성 있는 행동이 전제돼야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소위 '진정성 프레임'에 갇혀 고립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삼각동맹의 한 축인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인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시키는데 성공했고, 계기에 3국 간 협력복원 및 3국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기 개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싣는 등 아베정권의 도발은 주변국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한일 양자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워싱턴 링컨기념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안내하며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온 행보로 가늠할 때 오는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 둔 아베 총리의 입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전제로 제시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상하원합동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헌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과거사 사과에 대해선 '물타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3국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국외교실패론'이 나오자, 정부는 노광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의 국가안보, 한반도 안보,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왔다"면서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미•일 동맹강화, 중일관계 개선 움직임, 그리고 아베 정부의 '과거사 버티기' 속에서 우리 '진정성 외교'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cunjam@news1.kr

북 남침시 자위대 자동개입?…미일 방위협력지침 7문7답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과 일본 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다면,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아태 지역은 물론 전세계로 확대했다.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군사력이 경우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로든 미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역으로의 진출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는 물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의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배경과 주요 의문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란.

▶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 간 작전 범위와 각 상황 별 협력사항을 규정한 문서로 통상 '미일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른다.

1978년 구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 마련됐다. 미일은 1996년 안보공동선을 발표한 직후 1997년 가이드라인을 수정,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으로 확대했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달라진 것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간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기존 '주변지역'에서 '세계'로 확대했다. 또 평시부터 전시까지 상황별 미일협력 가능성을 규정해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협력키로 했다.

– 미국의 노림수는.

▶ 국방비 감축 효과를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군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국방비 감축 필요성이 오래전 부터 제기돼왔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강제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 발동으로 국방비 삭감은 가시화됐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은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북아 지역 안보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더 큰 틀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암묵적 의도가 깔린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중 주요 외교 목표이기도 하다.

– 일본의 노림수는.

▶ 당장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문제가 생겼을 당시 미군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섬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적을 공격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 방위' 규정을 포함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범국'의 한계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당부분 깨졌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국이었다. 공식적으로 군대도 갖지 못해 전수방위권을 내세운 자위대만을 운용해왔다.

–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 운용과 관련 "제3국의 완전한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과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해 무력사용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가장 우려했던 주변국은 한국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칫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여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때문이다.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즉 한국의 우려를 반영해 자위대 운용 상 한국의 영역에 진입할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외교적 차원에서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남침하면, 자위대 자동개입?

▶그렇지 않다.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영토•영해•영공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해서 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가 자동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출할 외교•안보적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한 목적은 결국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의 남침을 포함한 급변사태 시 미국은 주한미군 뿐 아니라 자위대 운용까지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미일 간 동맹 강화가 궁긍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측면이 짙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당장 미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과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딜레마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안보와 역사문제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하는 흐름에 대한 국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등 얻어낼 것을 이미 얻어낸 형국이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할 외교적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bin1981@news1.kr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대한민국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공교육 강화와 국제사회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영어권 재외동포를 포함한 젊은이를 초청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어교사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 영어권국가의시민권자로서,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서, 현지 4년제정규대학에서 2년이상수료한 재학(졸업)생 또는 전문대졸업(예정)자
  ※ 재외동포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대학 1,2학년생도 지원 가능
  ※ 영주권 미취득자인 재외동포도 지원가능하나, 현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체류기간이 최소 8년 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계약기간 :6개월 (2015년도 하반기)

■ 지원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 포함/ TaLK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수입지도안 (TaLK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성적증명서원본, 추천서(2매), 이권사본, 범죄사실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 범죄사실증명서(CRC)는 연방정부(FBI) 발행 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때부터 거주했던 모든주(State) 발행중 선택하여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하여 제출

■ 장학혜택
- 장학금(동시활동비) 지급: 매월 150만원
- 입/출국 지원금, 숙소(원룸형태), 외국인유학보험, 정착금, 한국문화체험, 휴가 등 제공
  ※ 상세 사항 http://www.talk.go.kr 참조

■지원마감일: 2015년 5월 8일

■접수처 :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소 : 300 Washington Street, Suite 251,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Fax. 1-617-641-2831
E-Mail:kcgboston@mofa.go.kr
홈페이지 : http://usa-boston.mofa.go.kr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윤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전 3:15)

담임 목사: 우 시 창
☎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2시 | 주일학교: 오후2시
중고등부: 오후2시 | 대학부모임: 주일12시
금요기도회: 오후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02072
www.bostonrenewal.org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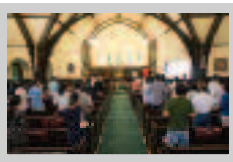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초대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찬양집회와 예배로

너무나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세상에 없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퀸지 영생 장로교회 성도 일동

5월 16일 저녁 7시 30분: 이광희 선교사 찬양 집회

5월 17일 오후 2시: 이웃과 함께 하는 예배

장소: 퀸지 영생 장로교회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http://www.quincychurch.org

문의: 919-412-9151

퀸지 영생 장로교회는 . . .
건전하고 바른 복음적 신앙고백에 기초한 미국장로교(PCUSA)
보스턴노회 소속의 한인 교회입니다.

이광희 선교사 약력:

인천 신현 감리교회 찬양선교사
NGO 선한 사람들 친선대사,
한국복음성가 대상 가수상 2회 수상
CBS'새롭게 하소서', CTS'내 영혼의 찬양' 출연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I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레드삭스 선발 투수 이대로 괜찮을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보스톤 레드삭스 선발 투수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올해 시즌을 예측하고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레드삭스의 선발 투수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레드삭스가 홈구장인 페웨이 파크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 선발 투수들의 방어율은 5.75였다.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들의 방어율이 가장 높은, 최악의 선발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레드삭스의 선발 투수들은 경기당 평균 5와 1/3이닝을 던지고 있다. 이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24번째로 낮은 수치다.

레드삭스가 양키스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불안한 선발 투수진으로는 장기 레이스를 이어갈 수 없다. 레드삭스가 그나마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공격력 덕분이다.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주전급 선발 투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레드삭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현재 레드삭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5명의 선발 투수들은 시즌 시작 전부터 2015 시즌에 선발 투수로 기용할 선수들이었다.

지난 27일 블루 제이스와의 경기가 끝났을 때 레드삭스는 전체 시즌의 12%를 소화했고, 선발 투수들이 모두 4번씩 기용됐다. 선발 투수들이 모두 4경기씩을 소화했을 때의 방어율을 살펴보면 클레이 벅홀츠가 4.84, 릭 포셀로가 6.48, 저스틴 매스터슨이 5.16, 웨이드 마일리가 8.62, 그리고 조 켈리가 4.08을 기록 중이다.

제1선발인 벅홀츠를 비롯해서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투수가 없다. 특히 시즌 시작 전부터 우려가 되었던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것이 레드삭스의 가장 큰 문제다.

선발 투수가 올해 레드삭스의 가장 큰 약점이 될지, 혹은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황이 나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작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내셔널스가 첫 19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의 방어율이 4.57로 리그 26위였지만, 시즌을 마칠 때는 방어율 3.04로 리그 1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초반 19경기 선발 투수 방어율과 비교하여 시즌 방어율이 1점 이상 낮아진 팀은 2팀이 더 있었고, 0.5점 이상 낮춘 팀은 6팀이 더 있었다. 레드삭스의 경우에는 작년 초반 19경기 방어율이 4.12로 리그에서 20위였지만, 시즌을 마칠 때는 3.48를 기록해 리그 7위로 상승했다.

현재 레드삭스의 선발 투수들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특히 레드삭스는 선발 투수진의 붕괴를 선언하고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하기 보다는 기존 투수들의 약점을 보강하며 시즌을 꾸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

존 패럴 레드삭스 감독은 "팀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투구에 달려 있다. 투구에서 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선발 투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예측만 하기 보다는 선발 투수들의 투구가 더 일관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레드삭스의 제1선발 클레이 벅홀츠가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매킬로이, 캐딜락 매치플레이 여유있게 첫 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월드 골프 챔피언십(WGC) 캐딜락 매치플레이(총상금 925만달러) 첫 날 여유있게 승리를 챙겼다.

매킬로이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 파크(파72•7169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조별라운드 1조 첫 경기에서 제이슨 더프너(미국)에게 4개홀을 남거두고 5홀의 리드를 잡아 승리를 거뒀다. 이 대회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는 매킬로이는 첫 날 완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매킬로이는 브랜트 스네데커를 꺾은 빌리 호셸(이상 미국)과 함께 조 공동선두에 나섰다. 매킬로이는 5월1일 스네데커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매킬로이는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상대가 잇달아 보기를 범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듀프너 역시 버디에 성공해 앞서가지 못했던 매킬로이는 3번홀(파4)에서 상대가 보기를 범해 먼저 한 홀을 앞섰다.

이어 8번홀(파4)과 9번홀(파3)에서도 듀프너가 연속 보기를 범하면서 전반 세 홀을 앞섰다. 듀프너는 10번홀(파4)에서도 보기를 범해 어느덧 네홀 차이가 됐고, 14번홀(파4) 역시 듀프너의 보기로 승부가 결정됐다. 4홀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매킬로이가 5홀을 앞서면서 경기가 그대로 종료됐다.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 조던 스피스(미국)도 첫 승을 올렸다. 스피스는 2조 경기에서 미코 일로넨(핀란드)에 2홀을 남기고 4홀을 앞서면서 1승을 챙겼다.

첫 날부터 이변도 쏟아졌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7위인 제이슨 데이(호주)는 7조에서 찰리 호프먼(미국)에 3홀을 남기고 4홀을 뒤져 패했다. 호프먼은 10번홀까지 동률을 이뤘지만 12번홀, 1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앞서나갔고, 15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해 승리를 확정지었다.

또 3조에서는 세계랭킹 65위 존 센든(호주)도 3위 헨릭 스텐손(스웨덴)을 한 홀차로 따돌렸다. 한 홀차로 끌려가던 센든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고, 연장 첫 홀에서도 버디를 낚으며 극적인 역전극을 펼쳤다.

9조의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세계랭킹 70위)도 한때 세계랭킹 1위까지 점령했던 아담 스콧(호주•9위)을 제압했다.

한편 세계랭킹 21위로 이번 대회 출전한 유일한 한국계 선수인 케빈 나(32•한국명 나상욱•타이틀리스트)는 16조에서 주스트 루이튼(네덜란드)에게 한 홀차로 패했다.

반면 같은조의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세계랭킹 16위)는 알렉산더 레비(프랑스)를 14개홀만에 꺾고 첫 승을 챙겼다.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조별리그 방식이 도입됐다. 강호들이 대회 초반에 줄줄이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전선수들은 최소 3경기를 치르게 된다. 각 조 당 4명씩 16개조로 나뉘어졌고, 사흘간의 조별리그를 통해 각 조 1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이후 5월 3일과 4일 이틀 간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starburyny@news1.kr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가 월드 골프 챔피언십(WGC) 캐딜락 매치플레이 첫 날 여유있게 승리를 챙겼다

눈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눈꺼풀 수술을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격증 있는 안과의사에 맡기십시오

- 기능적 눈꺼풀 수술 (졸린눈, 눈 찌르는 속눈썹 교정)
- 성형 눈꺼풀 (쌍꺼풀 수술)
- 보톡스, 레스틀린, 및 기타 주입 성형물

나영 그레이스 리 (Nahyoung Grace Lee), M.D.

그레이스 리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의를 지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Massachusetts Eye and Ear

Boston and Waltham Locations • 617.573.5550 • MassEyeAndEa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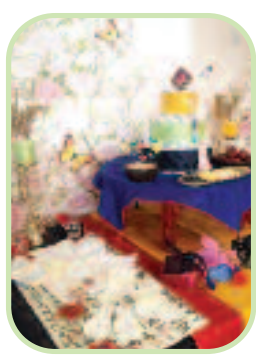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옹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촛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NEWSTAR® Realty of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NEWSTAR BOSTON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Off Market 매물
(마켓에 아직 나오지 않았음)
Available in 9/1/2015
Wellesley Single Family

$1,295,000
Wellesley, MA
4 Beds, 3.5Baths,
Brick Exterior
웨슬리 중심에 위치
뉴스타 오피스781-259-4989

$51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520 sf.
세련된 스타일, cul-de-sac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99,900
Sharon, MA
3 Beds, 2Baths, 1454 sf.
많이 수리된 좋은 주택
세련된 백야드
이현주 401-935-3397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 리 978-806-6023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 독 주 택 콘 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곳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지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지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NEWSTAR® Realty of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NEWSTAR BOSTON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지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9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70,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지니스
Anna Jung 617-780-1675

Food Court

$199,900 & $99,900
Boston, MA
한식, 중식가능
큰 마켓안의 장소, 매상좋음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Great business potential
Kwang O. Kim 617-792-861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18 May 1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업소탐방 284

쌍커풀로 이미지 변신

매스 아이 앤 이어(Mass Eye and Ear)

매스 아이 앤 이어

243 Charles St, Boston, MA 02114
617-573-5550
masseyeandear.org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쌍꺼풀 없는 작은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안검하수로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매스 아이 앤 이어(Mass Eye and Ear)의 이나영 박사를 소개한다.

이나영 박사는 하버드 의대 소속 병원인 매스 아이 앤 이어의 안성형 전문의로 쌍꺼풀 수술을 전담하고 있다.

이 박사는 "쌍꺼풀 수술을 크게 기능(Functional) 수술과 미용(Cosmetic) 수술로 나뉜다"며 "동양인은 주로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을 받으러 오는 반면 서양인은 눈꺼풀이 쳐지거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불편함으로 인해 기능적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안검하수, 눈을 찌르는 속눈썹, 눈물 과다 분비 등이 기능 수술 대상자에 포함되며 몇 차례의 테스트를 거친 후 BMC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으로 수술비용이 처리된다. 단, 미용 성형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박사는 "대학 병원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매스 아이 앤 이어를 찾는 대부분은 미국인으로 기능 수술을 받기 때문에 미용 성형을 집도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이 박사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병원에서 한국 스타일 미용 성형의 경험을 쌓았다.

한편, 이나영 박사는 한국의 성형 트렌드에 대해 "너무 유행을 따른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꺼냈다. "미국인은 젊어 보이는 시술을 주로 하지만 한국은 유행따라 성형 트렌드가 바뀐다"며 "성형수술을 거듭할 수록 상처도 많이 나고 시술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이나영 박사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선호한다. 얼마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중국인 환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굉장히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생겨 좋아하더라. 이 친구는 지금 앞트임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환자들이 바뀐 모습에 기뻐하고 감사해할 때 이 박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녀는 "의대 과정을 마치고 8년의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환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함께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나영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의를 지내고 지난 9월 매스 아이 앤 이어에서 교수직을 받았다.

기능 또는 미용 쌍커풀 수술에 관심있는 사람은 매스 아이 앤 이어(617-573-5550)에 문의해 상담예약을 받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벡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R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입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산업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I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어 벧엘교회	978-274-2369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십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증축 루핑사이딩 창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뱅가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운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훼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님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묵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소시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워너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턴피시	617-282-2980
브록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올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 (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스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사무라이	617-236-7672
사뽀로	617-964-8044
사뽀로스시바베큐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설렁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야수	617-738-2244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씨푸드카페	617-983-5177
청기와 레스토랑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617-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식품

고향식품	413-586-2682
미래식품	401-941-9419
릴라이어블마켓	617-623-9620
미림식품	617-783-2626
신신식품	978-686-0813
Sun 동양식품	207-772-8675
H마트	781-221-4570
오미식품	413-736-7878
은혜식품	603-893-8511
제일식품	413-592-5452
청계식품	978-772-5213
한아름	617-547-8723

여행사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유니버스여행사	617-739-288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IACE여행사	617-424-8956

운송(이삿짐)

대한이삿짐㈜	877-460-2424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61-2424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645-1538
보고운송/보고해운	866-411-2424
OHNK(오앤캐이)	978-922-0929
우리익스프레스	617-699-6272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2-2424
한진택배 귀국이사	617-935-3022

유학원/영어학원

뉴잉글랜드 유학원	617-877-0387
대림유학원	617-301-2344
렉싱톤프렙스쿨(LPS)	781-860-7550
보스턴교육원	339-234-5255
Boston Street Consulting	617-431-5353
보스톤유학원	617-491-0041
선진 학원	781-863-0677
영토플	617-783-9822
청담어학원	617-960-8877
ASC English	617-730-3705
BIA 보스톤 어학원	617-731-6390
Eduwellboston	617-795-0879
Harvard Square Academy	617-492-2722
SATplus	781-398-1881
SD 아카데미	617-505-1852

의류/잡화/신발

Alpha & Omega	617-427-3044
Melting Pot	617-298-2288
New York Fashions	617-427-2632

이발소

린든이발관	781-489-5633

인쇄/디자인

나비스	617-756-5744

자동차(정비)

SUN AUTO(태양자동차)	781-391-3700
대진자동차 (정비)	781-275-0384

자동차 매매(리스)

태양자동차공업	781-391-3700
USA SPEEDY AUTO	978-535-3855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사우스네틱걸프	508-653-4100
올스톤오토브로커스	617-787-6229
자동차국내보증리즈구매	617-755-6941

주류

산소주/참소주/백세주	617-216-6472

정수기

American Rainforest	617-787-1667

지압원/스파

마음수련센터	781-643-2651
CHO'S SPA	781-231-0606

치킨

본촌	617-254-8888
K-town 치킨	617-337-3500

컴퓨터

ACCESS TECH	617-308-1053
Boston HTPC	617-645-8885
FIXALL	617-710-4952
MICRO DIMENTIONS	781-830-1060

콜택시

Boston 한국 콜택시	617-461-9270
캠브리지 콜택시	617-999-6613

플러밍

Dr. Drain	617-645-6146
JK Plumbing	978-303-7000
SC Plumbing&Heat	781-858-1611

태권도/무술/단전

구정회태권도장	781-935-3773
권TKD아카데미(권영안)	978-858-3699
김영권태권도	978-688-1037
김재훈태권도장 Camb.	617-492-5070
박스TKD스쿨(박선우)	603-433-2099
박스TKD아카데미(박영학)	978-345-3007
NH태권도(정운학)	603-714-5472
Sun 태권도 아카데미	978-777-5435
윤스 태권도	781-430-0075
이강원 태권도장	781-344-7900
이종수태권도도장	603-623-1022
이평팔중앙태권도도장	617-776-6161
조올림픽TKD (조형구)	781-326-9009
초이TKD아카데미(최창헌)	413-736-1008
초이TKD아카데미(최호진)	508-478-6600
KIM's TKD(김영훈)	508-898-2882
MASTER AN'S TKD(안남열)	978-453-5387
MuHan Martial Arts	978-500-3322
US태권도센터(정재형)	508-767-1717

한국 학교

뉴잉글랜드한국학교	508-842-1551
뉴햄프셔한인학교	603-437-5134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401-274-2044
메인 한글학교	207-797-8711
밀알한글학교	678-516-4974
보스턴시온성한국학교	978-256-5655
보스턴장로교회한국학교	508-435-4579
보스턴한국학교	617-739-2663
북부보스톤한국학교	978-390-1552
성요한 한국학교	781-861-7799
우리뿌리 한국학교	603-674-3415
우스터-트윈시티한국학교	508-799-4488
좋은땅한국학교	978-930-6613
퀸지영생한국학교	781-356-8586

한의원

뉴라이프헬스센터	617-524-9551
선가든힐링 센터	617-953-4988
선유당	617-327-1812
용한의원	774-270-2621
은혜 한의원	781-862-1842
일선당 한의원	617-787-4503
혜민 한의원	617-787-0789

화장품

아모레	781-229-6800
소라 시세이도	617-876-7200
제시카 뷰티	617-770-0188
CoCo 화장품	781-272-3137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기타

남녀옷수선전문점	781-273-0006
보스톤 마음 수련원	781-643-2651
보스톤 온수비데	781-274-6928
보스톤 한국운전교습	617-461-9270
이주연 의료통역	603-502-7228
최보살	781-812-6509
폐백	978-688-0929
Emmanuel P.L.Trading Inc.	781-541-0081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MIN-AH MAKEUP	508-617-7122
한미번역센터(토마스)	781-688-8151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Auto Tech	917-566-8161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이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5/22
렉싱턴소재 한,일식 식당 웨이추레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구함.
T. 781-860-017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5/22
주방보조 풀타임 일하실 분 구함
치코피 지역 한식당
T. 413-262-3218

5/1
가스펠 뮤직 그룹 멤버를 모집합니다.
각 Instrument 와 Singer.
T. 978-397-8939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Nail Tech

Owner retire.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environment. Steady clienteles. Big cash flow. Asked for 100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5/22
보스톤 북쪽 지역 일식당 매매
16년 된 식당, 연매상 $700,000
T. 978-494-2712

5/1
N [매 매]
치킨윙,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케롤라이나 휀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5/29
N [매 매]
올랜도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5/1
N [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5/15
N [매 매]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10분거리
풀 플랜트, 30년 운영 세탁소
주인 은퇴, 매매가 $85,000
건물 매매도 가함.
렌트 시 월 $1,500
T. 413-271-4357

4/24
N [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4/10
N [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4/24
N [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뺀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4/10
N [매 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4/10
N [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4/24
N [매 매]
샬롯 ,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4/10
N [구인]
높은 수입보장(월 6천 – 1만)
손님 수준 높고 Tip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
S 룸.카페 마담, 아가씨 구함
산호세 지역 , 숙식제공
주급+Tip 수준높은 실리콘 밸리 지역
T. 651-329-3307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클라라 측근 "로비스트 제안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클라라 측근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를 제안했다고 주장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 클라라 측근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25일 밤 11시10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진실공방 뒤에 숨겨진 실체를 파헤쳤다.

지난 1월 여배우 클라라와 60대의 성공한 사업가 이규태 회장간의 '성적 수치심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참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일어났다. 양측이 서로를 맞고소하며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갔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클라라 측근을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클라라 측근은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를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 연예인 하지 말고 로비스트 하는 게 어떠냐?'고 수시로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수준급 영어 실력과 세계가 인정한 외모를 가진 클라라가 외국 업체를 상대하는 이 회장에게 꼭 필요할 거라는 주장이다.

클라라는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계속 그 사람에 연루되는 게 너무 무섭다.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는데 더 이 사람을 건드려서 피해보는 건 저랑 아빠다. 이러다간 아빠랑 저랑 한국에서 못 산다"고 힘든 속내를 털어놨다.

lee1220@news1.kr

김나영 결혼식 장면 화제

영화 〈위대한 개츠비〉 속 데이지 같아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 방송인 김나영(35)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결혼식 분위기가 화제다.

2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인 김나영 결혼식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나영의 한 손에 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석양과 제주 돌담길을 배경으로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위대한 개츠비 데이지 같다(zlwh****)" "나도 저런 결혼식 하고 싶다(hoha****)"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지금까지 본 김나영 모습 중에 제일 예쁨(0430****)" "진짜 따뜻한 결혼식 풍경이다(elle****)"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나영의 결혼식 풍경에 감탄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도에서 지인들과 소박한 결혼식을 연 김나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소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저희들의 친구 10명과 함께 평소보다 조금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조금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그들 앞에서 결혼 약속을 하려 해요"라며 결혼 직전의 설레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김나영의 예비신랑은 40대 금융계 종사자로 알려졌으며, 김나영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엔터테인먼트는 "김나영씨는 4월 27일(월) 제주도 인근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듬직한 남성분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라면서 "연예인이 아닌 신랑을 배려해 나이 및 직업과 같은 인적 사항 일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ho0901@news1.kr

'한밤' 장동민 편파 보도 논란 "대기 시간 30초?"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장동민 사태를 보도한 SBS '한밤의 TV연예'가 편파 보도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장동민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개그맨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민과 장동민 소속사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 지난 17일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이날 오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고소사실을 알게 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 파악 후 장동민은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에게 이날 오전 11시 49분경 문자 연락을 취한 후 사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건물 내에서 사무실 간판이나 안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헤매고 있던 차에 장동민의 얼굴을 알아본 1층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선종문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냐'고 물었고 선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됐다. 장동민에게 사무실 직원은 '변호사님이 안 계신다'고 답했고, 장동민은 '편지만이라도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장동민은 매니저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34층으로 올라갔으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이 사무실 밖 복도에 나와있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며 "장동민은 편지를 건네며 '당사자께 전해 달라.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직원은 '업무방해죄니 빨리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과 매니저는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선변호사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까 건물 밖에서 상당 시간 대기했다"고 이야기했다.

연이어 "저희는 사과 편지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고, 고소인측에 꼭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렸다. 고소인에게 전달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렸음에도 언론을 통해 '무슨 봉투인지',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저희를 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장동민이 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고 대기했다는 것은 당시 1층 안내데스크를 맡고 있던 직원 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속사 차량의 CCT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 11시15분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장동민이 사과를 위해 3시간은커녕 30초도 밖에 대기하지 않았다고 전해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엑소 매니저 팬 폭행 '문제의 장면' 포착

온라인 커뮤니티서 확산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팬을 때려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폭행 장면이 온라인에 게시돼 화제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9일 '엑소 매니저 폭행 장면'이는 제목의 GIF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엑소 멤버들을 향한 한 여학생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를 제지하던 엑소의 매니저가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머리를 맞은 여학생은 카메라에 얼굴을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다. 이후 여학생은 목 인대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도중 엑소 사진을 찍으려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당시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엑소는 올해 데뷔 3주년을 맞은 10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최근 '콜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soho0901@

한주간 TV 시청률 순위

2015년 4월 20일 ~ 4월 26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당신만이 내 사랑)	29.2%
2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1.8%
3	KBS1	KBS9시뉴스	17.9%
4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울려)	16.1%
5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4.5%
6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4.4%
7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4.3%
8	KBS2	해피선데이	14.2%
9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3.5%
10	KBS1	대하드라마(징비록)	13.0%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4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5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6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7	MBC	월화드라마(화정)
8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9	KBS1	인간극장 2015
10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어머님이 누구니 (Feat. 제시)	박진영
02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03	아예 (Ah Yeah)	EXID
04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05	Puss (Prod.by 라이머)	지민, 아이언
06	한번 더 말해줘 (Feat. 장한나)	지누션
07	사월의 눈	허각
08	두사람 (Feat. 매드클라운)	다비치
09	CALL ME BABY	EXO
10	조만간 봐요 (Feat. BSK, 개코)	프라이머리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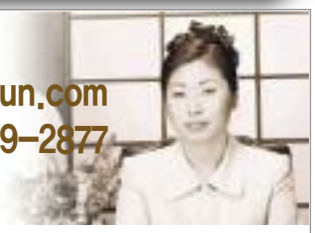
		4	6		3	7		
	2	6					1	8
			8		2			5
				9			8	7
			4	2	7			
3	7			8				
2			9		8			
8	6					5	7	
		9	1		5	8		

5월 3일 – 5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운수: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여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시도해야 합니다. ●금전 : 재산은 모으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애정: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하고 무관심하기 쉽군요. 자상하게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아픈 곳은 어루만져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

소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수:생각대로 모든 일이 전개되는 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예상외의 수입으로 은행잔고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 애정:불만의 마음을 갖기 전에 상대를 폭 넓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서 역시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범띠 |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운수:주변이 아무리 소란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실수도 하지 않게 됩니다. ● 금전: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애정:수상쩍은 기미가 느껴집니다. 용납하기 쉽지 않으니 끝까지 파헤쳐서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미련을 두지 말고

● 운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불필요한 고뇌에 빠져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생기는 주입니다. ● 금전: 자신의 분야 밖의 일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도 없이 피곤할 뿐입니다. ● 애정 :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이 없고, 사랑에 성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애간장을 태우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포기하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용띠 | 있는 그대로 보아야

● 운수: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 금전:마음가짐을 크고 대범하게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금전운을 살릴 수 없습니다. ● 애정:남몰래 좋아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9일 길일. 6, 7일 주의.

뱀띠 |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 운수:뭐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얘기하고는 뒤에 가서는 후회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는 손해를 보기 쉬울 것입니다. ● 애정: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비위를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말띠 |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 운수: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관심과 배려는 원활한 인간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누구를 좋아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속에만 간직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7일 길일. 3, 9일 주의.

양띠 |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

●운수: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태도가 운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붕어를 낚으려다 잉어가 잡고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 격인 운세입니다. 우연치 않게 기대 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애정: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

원숭이띠 | 제삼자를 통하도록

●운수: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 일을 해결하려면 제삼자를 통하도록 하세요. 독단적으로는 해결하려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상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무엇인가 딴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

닭띠 | 자기 계발을 해야

● 운수: 자기 계발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 금전: 피땀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니 수입 면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 애정: 용기를 내서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그₩동안 불편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5일 길일. 3, 6일 주의.

개띠 | 폭풍이 치다가 곧 해가 나는

● 운수:희로애락의 감정이 자주 변하고 인내력이 부족으로 일에 싫증을 잘 느끼고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때입니다. ● 금전: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유화적인 태도가 필요한 주입니다. ● 애정:마치 한여름 폭풍이 치다가 곧 해가 나는 것과 같군요. 불같이 화를 내지만 금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인내와 양보로

● 운수:일과 근심걱정에 쫓겨서 쉴 틈이 없는 때이니 과로를 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에 돈인 것입니다. ● 애정:서로가 인내와 양보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예정화 · 정아름 · 유승옥 비키니 대결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예정화, 정아름, 유승옥 비키니 사진이 화제다.

지난 23일 밤 11시 방송된 JTBC '썰전-예능심판자'에서는 머슬 글래머 대표 정아름, 유승옥, 이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정아름은 80kg였던 사실을 고백하며 3개월 만에 25kg 감량 비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최근 건강하면서도 섹시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승옥을 극찬했다.

MC 김구라는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촬영하며 예정화를 처음 알게 됐다. 비키니 몸매까지도 완벽했다. 머슬 담당 코치라고 하던데 정말 엄청났다. 이 분이 유승옥씨와 맞먹는다"고 예정화의 몸매를 극찬했다.

방송 후 정아름을 비롯해 예정화, 유승옥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이들의 비키니 사진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비인형처럼 깡마른 몸이 아닌,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여기에 볼륨감까지 더해져 워너비 몸매로 등극했다.

lee1220@news1.kr

'피드백' 보라, 하니와 미모 대결 '막상막하'

(서울=뉴스1) 온라인팀 = '피드백' 보라가 EXID 하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씨스타 보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게 완성 컷. 성공했어. 보그걸. 어스타일포유"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하니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두 사람은 밝은 갈색의 긴 웨이브 헤어 스타일과 뚜렷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인형 같은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kijez875@news1.kr

핑클(Fin.K.L) 완전체 회동, 팬들 흥분

데뷔 일화 밝혀 웃음꽃 "이상하게 운이 좋았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핑클(Fin.K.L) 멤버 이효리, 옥주현, 성유리, 이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이효리의 공식 팬페이지와 옥주현의 소속사 페이스북에는 최근 핑클의 네 멤버가 회동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레스토랑에서 핑클의 네 멤버가 다정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네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모습이다.

옥주현은 사진 게시와 함께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펼쳤더니 재미난 일들이 많기는 하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옥주현은 "이상하리만큼 운이 좋았다"며 "노래 안 되고 춤도 안 되는데 '연습생 시절'이란 것도 없이 그 상태로 데뷔를 시킨다고 망할 거라고 확신하며 아무 기대도 겁도 없이 세상에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웃음꽃이 활짝 폈다. 신기하지 않냐며, 잠깐 꿈을 꾸고 깨어난 것 같다며"라며 "갖춰진 것도 없이 운이 억수로 좋았던 건, 말이 안 되는 걸 되게끔 옆에서 애써준 사람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핑클을 에워싼 숲이 되어준 그대들에게 고맙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넷이서 이야기 나누며 많이 그리워했어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진은 그간 핑클을 둘러싼 불화설을 잠재웠다. 2005년 디지털 싱글 'FINFL' 이후 개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핑클을 두고 일각에서는 멤버 간 불화로 재결합이 어렵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성유리와 이효리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돼 불화설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기기도 했다.

soho0901@news1.kr

New name for G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시청률 BEST 10

1	MBC	압구정 백야
2	KBS	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불굴의 차여사
4	MBC	풍문으로 들었소
5	MBC	폭풍의 여자
6	SBS	달려라 장미
7	MBC	화정
8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9	KBS	인간극장 2015
10	KBS	오늘부터 사랑해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신규 방송

1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3	KBS	후아유 – 학교 2015
4	SBS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최신 영화

1	조선명탐정	김영민/오달수
2	나의 독재자	설경구/박해일

유재석 김구라 '동상이몽' 따뜻한 예능으로 드라마 틈새 돌파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유재석 김구라의 '동상이몽'이 첫 방송 이후 호평을 받았다.

지난 25일 첫 방송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승기를 빼닮은 미남 아들의 연애를 극구 반대하는 광주의 한 엄마와 아들, '사'자 직업을 강요하는 안양의 치킨집 아빠와 딸이 동상이몽 가족으로 출연했다.

치킨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새봄 양 아빠의 하루를 보며 "아빠 치킨 쏟을 때 나도 눈물 쏟음", "아빠 편 보면서 엄청 울었네요", "재밌고 눈물나고 반성하게 되고 훈훈하고" 등 따뜻한 예능에 네티즌들의 공감과 호평이 이어졌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동상이몽'은 전국기준 4.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작 '아빠를 부탁해' 첫방송 시청률에 비해 2%포인트 낮은 수치이나 이새봄 양과 아빠의 승부 장면에서는 순간 최고 7.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동상이몽'은 유재석 김구라가 한 방송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그간 드라마 시간대였던 주말 밤 9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 선택권을 넓히며 다시 한 번 공감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ppbn@news1.kr

김명민 "셜록홈즈보다 조선명탐정이 우월하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 김명민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조선명탐정 2'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김명민은 "극중 캐릭터가 '셜록 홈즈'와 많이 비슷하다"는 취재진들의 언급에 "'셜록 홈즈'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셜록 홈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제작된 작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기에 '조선명탐정'이 더 우월한 것 같다"면서 "'조선명탐정' 속 인물들은 인간미 넘치고 귀엽지 않나. 허당과 천재를 오고가는 주인공 '김민'의 모습이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은 2011년 개봉해 478만6259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선전했던 '조선명탐정: 가시투구꽃의 비밀'의 두번째 시리즈다.

조선 제일의 명탐정 김명민(김민)과 그의 파트너 오달수(서필)가 조선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은괴에 대해 조사하다가 미스터리한 게이샤 이연희(히사코)를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

khe45678@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스페셜 이벤트
$9.99 (첫 3개월)
대상: TBO Play 신규 가입자
내용: 첫 3개월 $9.99 이후 $34.99
(정상가: $39.99)

이동 고객 우대 스페셜
$29.99
대상: 타사 케이블 고객중 이동을 원하시는 분
내용: 1년 이상 가입시 월 $29.99
(정상가: $39.99)

친구(신규 가입자) 소개
한달 무료시청
대상: TBO Play 가입자 중 소개자
내용: 소개 받으신 분이 첫 페이먼트를 한 이후 그 다음달에 소개자에게 한달 크레딧 적용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컨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1. **브루크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비지니스 리스팅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496회

어번 그래니(Urban Granny)의 그 독특한 색깔 그리고 그 무늬와 향기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요즘은 뒷모습만으로 나이를 예측할 수 없어졌다. 그만큼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던 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어번 그래니(Urban Granny)인 것이다. 그 나이쯤이면 아이들은 훌쩍 자라 엄마의 곁을 떠나고 곁에 있는 남편이 위로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고 뭔지 모를 외로움에 가끔은 울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시기가 여성의 폐경과 함께 갱년기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유이다. 이 시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

"어번 '그래니(Urban Granny)'는 '도시의'라는 뜻의 'Urban'과 할머니의 줄임말인 'Granny'의 합성어이다. 직역하면 '도시의 할머니' 또는 '도회적인 할머니'라는 뜻으로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50대 이상의 여성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을 가꾸는 세련된 50대~60대 여성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어번 그래니'를 2015년을 주도할 키워드 중 하나로 소개하며 알려졌다. 어번 그래니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평준화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몇 지인들이 있다. 물론 연배가 나보다는 몇 살씩 위인 까닭에 자식을 출가시킨 분들도 몇 계시고 손자 손녀를 본 분들도 몇 계신다. 가끔 할머니가 된 기분이 어떠하신가 물을 때도 있지만, 이미 할머니가 된 까닭에 그런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하신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자식을 키울 때는 모든 것이 여유롭지 못하니 제대로 아이를 챙기지 못했는데 손주는 어찌 그리도 예쁜지 엄마 아빠인 자식들보다 할머니인 당신이 더 챙기신다는 말씀이다. 참으로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려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손주들이 있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정작 그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의 모습은 간데없고 늦둥이를 둔 엄마의 모습이니 어쩔까. 멋쟁이 할머니를 둔 손자 손녀들도 그들에게는 축복일 게다. 바쁜 일손으로 분주할 엄마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쉼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멋쟁이 할머니' 덕분인 까닭이다. 삶의 경험으로 무엇이든 머뭇거림이나 거침이 없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일 처리하시는 모습은 정말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특권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삶의 경제를 이끌어 온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다. 자식에게는 바쁘게 사느라 아니 여유가 없어서 마음만큼 물질적인 것을 해주지 못했다. 그러니 손자들에게는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옛말에 '인심에서 광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무엇이든 줘야 좋다는 세상이 아니던가. 그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이고 아이들도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할머니 집이 좋고 사위나 며느리도 깔끔하게 정리된 시어머니나 장모님의 집이라야 자신의 아이들을 마음 편안하게 맡기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멋쟁이 할머니'들의 특징이라면 자신의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 경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산다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준비하고 운동(헬스)을 하며 산에 오르고 들로 바다로 산책하며 자신의 취미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않은가. 여자 나이 오십과 육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라는 생각을 한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삶의 지혜가 되고 넓은 가슴으로 무엇이든 받아줄 수 있는 여유는 그들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인 까닭이다.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멋쟁이인 그런 할머니로 남고 싶다고 그렇게 매일 주문을 외듯 기도를 한다. 제대로 잘 늙어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화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늙음을 비켜갈 그 무엇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던가. 몸은 늙는데 마음만 늙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 노년에 오는 신체의 변화도 삶의 한 부분이기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한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밖에 나눌 것이 뭐 있을까.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이길….

한담객설閑談客說:

누가 이 꽃을 아시나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꽃 피는 봄이다. 신록의 계절이기도 하다. 목련이 핀 걸 며칠 전에 봤다. 목련은 사월인데, 진달래도 봄 꽃이다.

지금은 김포쪽에서 한강 건너편을 일산이란다. 그때는 아직도 고양군이었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니 일산대교를 놓기 훨씬 전이다. 난 대한민국 육군 졸병이었다. 그해 봄, 강 넘어 저편 강둑엔 진달래가 지천이었다. 멀고도 긴 강둑을 덮은 붉은색은 이른 봄 연푸른색을 압도했더랬다. 너무 붉어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한강 바람이라도 얼핏 불어당길 적엔, 질금 오줌방울마저 지릴 지경이었던 거다. 푸른 한강물과 진홍 진달래는 격렬한 조화였던 거다. 지금이야 모두 없어졌을텐데, 그런 진달래의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봄이면 화려하던 진달래 꽃 군집을 떠올린다. 소월의 진달래꽃과는 사뭇 다른 정서일게다. 가냘픈 진달래도 뭉쳐있을 적엔, 감정이 다르다. 이번 봄엔 소월素月을 그냥 넘길수는 없다. 소월은 흩어진 진달래꽃 몇 송이 일게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이어령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건 아니란다. 오히려, 사랑 투정이라던가. 만약에 떠나신다면 하고 양탈부리는 투로 읽어야 한다는 게다. 해석이 오히려 그럴싸하다. 그럼 그럼, 떠남과 이별은 가을이라야 하지 않겠나. 봄이면 떠났던 이들도 돌아와야 한다. 봄은 푸른 계절이고, 이별을 노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신록예찬이다. 이양하 교수가 썼던 수필이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웠다. 읽지 않았고, 배웠다라고 해야 한다. 그저 외우기에 모든 정성을 바쳤으니 말이다. 한 반 세기 지나서 다시 읽었다. 이번엔 읽었는데 몇 구절만 옮긴다.

'…….. 우리 연전延專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선생의 자리와는 지척인데, 학교 교정 언덕배기엔 진달래가 한 군락 있었다. 봄이고 이맘 때면, 참 보기좋게 꽃은 피곤 했다. 밤에 가로등 밑에서 보던 모습이 더 가관이었고 더 맑았고 더 간지러웠다. 아내는 그 꽃무더기 속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내 아버지가 찍어 주셨다. 아내는 곱기만 했는데, 진달래보다 더 붉었다. 그때 우린 한창 청춘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게 진달래꽃은 이별보다는 간지러운 사랑의 꽃이라 해야 할게다. 이어령의 해석을 따른다.

미국엔 진달래가 있던가. 사촌인 철쭉은 우리 집 뒷마당에 있기는 하다. 하긴 이 꽃나무도 철쭉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냥 철쭉이겠거니 하는 거다. 게다가 이 꽃을 보고 그냥 진달래겠거니, 내 입맛대로 진달래 완상玩賞법이다. 철쭉을 보면서, 진달래 사랑법을 되새긴다. 누가 이 꽃을 아시는가.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아가 2:12, 새번역)

WATOTO
AFRICAN CHILDREN'S CHOIR

WHEN **Wednesday, May 13 at 7:30 PM**

WHERE **N. B.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 , Andover, MA 01810

WWW.WATOTO.COM | WATOTO CHURCH AT WORK | /watoto @watoto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 인디언의 고대 문명 (3)

흙둔덕 건설 문명(Mound Builders)

미시시피 강과 오하이오 강 유역등 현재의 미국 땅의 동쪽 절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흙둔덕(피리미드와 유사한 언덕)을 건설하는 독특한 문명이 존재해 왔다. 종래에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발견된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Poverty Pont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Povery Point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보다 2천년이나 앞서 건설된 Watson Brake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흙둔덕 건설문명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에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대륙을 침입하던 시기까지도 흙둔덕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1540년에서 1542년까지 미국 남동부를 침략한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도 데소토(Hernando de Soto)를 비롯하여 이 지역을 찾아왔던 유럽인들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Mound Builders문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음과 분류된다.

Archaic era

Woodland period(Adena culture, Hopewell culture, Baytown culture)

Coles Creek culture

Mississippian cultures

Fort Ancient culture

Plaquemine culture

이 문명 유적지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Poverty point와 일리노이 주 미시시피 강가에 있는 Cahokia Mounds State Historic Site 등이 있는데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Cahokia Mounds State Historic Site에는 약 80개의 흙둔덕이 있는데 이 중 Monks Mound가 가장 크다. 대체로 10세기 중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Monks Mound는 중앙아메리카 북쪽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피라미드로서 1988년 측정 자료에 의하면 가로 291m, 세로 236m, 높이 30m이다. 밑면적의 넓이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하며 테오티우칸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한다. 피라미드 위에는 부족 추장의 거처로 보이는 높이 15m의 대형 목제 구조물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overty Point

미시시피 문명을 가장 늦게까지 보전해온 부족은 나체스족(Natchez)이다. 그러나 1730년 무렵 프랑스인들과의 여러 차례 전쟁에서 나체스족이 패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져 미시시피문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전쟁 중 프랑스군에 잡힌 나체스족은 서인도제도에 노예로 팔렸다.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크리크족, 치카소족, 그리고 체로키족의 영역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구하였다. 다음에 다루게 될 체로키족을 포함한 소위 문명화된 5개 부족들도 모두 과거에 미시시피 문명권에 속했다고 한다.

2.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첫 만남

발견의 영웅인가? 날강도인가?

미국 어느 한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콜럼버스를 재판하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는데 여기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그의 동상이 동유럽의 레닌 동상이나 이라크의 후세인 동상이 당했던 것처럼 성난 민중들에 의하여 끌어내려져 내동댕이쳐졌다. 콜럼버스 데이를 제일 먼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 시에서는 반 컬럼버스데이 행동주의자들의 반대 시위가 거의 매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해에는 시가행진 코스를 따라가며 원주민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액체를 뿌리기도 하였다.

학교의 교과서에서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적 항해가로 소개되고 소년 소녀들을 위한 위인전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을까? 양심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과거 콜럼버스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공개함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촘스키(Avram Noam Chomsky)교수와 더불어 오늘날 대표적인 행동하는 지식인인 진(Howard Zinn; 1922 – 2010) 보스턴대학 교수가 저술한 미국민중사(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는 콜럼버스에 대한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라스 카사스(Bartolome de las Casas)의 기록에 근거하여 콜럼버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많이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가볍게 다루고 지나쳐 버리는 사학자들을 나무라고 있다. 콜럼버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502년 서인도제도로 이주하여 가톨릭사제로서 오랜 기간 동안 현지에 살면서 원주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였다. 라스 카사스는 교황청 앞으로 원주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등 원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 말하자면 그는 최초의 인디언 인권운동가인 셈이다. 한편 라스 카사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드브라이 (Theodorus de Bry)는 라스 카사스가 기술한 인디언의 참혹한 모습을 금속조각(engraving)으로 그려 세상에 널리 알렸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콜럼버스의 잔혹행위가 점차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콜럼버스데이의 의미가 종전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79
최홍희와 태권도(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서양인들에게는 '제너럴 초이(General Choi, 최 장군)' 와 '태권도의 창시자(아버지)'로 더 잘 알려진 최홍희崔泓熙, 그는 굴곡 심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같이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누구나 공과가 있고 극과 극을 오가는 평가가 따를 수 있지만 모름지기 그의 삶은 특이하다. 일본 조기유학, 군인의 길, 태권도의 확산을 통하여 군내軍內서의 자신의 정치세력 구축화, 태권도의 작명, 외교관, 태권도 협회 창립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태권도연맹 창설, 망명과 친북활동 그리고 평양에서의 쓸쓸한 죽음113) 등이 그가 살다가 간 족적이다. 그는 태권도를 통하여 동양문화의 서양화에 일조 하였고 '태권도'란 작명자로 당수/공수(가라데의 우리식 발음)의 옷을 갈아입혀 우리의 무술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캐나다로 망명(정치적인 탄압이었던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과 이념에 바탕한 감상주의적이었던지를 떠나서…) 후 보여준 그의 행적은 자신을 스스로 역사속에서, 특히 태권도계의 역사속에서 지워가고 있었다. 그의 인생 후반에서 보여준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서 그가 신명을 바쳐 전파한 태권도는 많은 서양인들의 정신에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이룩한 태권도의 업적을 제대로 인정 받거나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을 무도(태권도) 중심으로 따라가 본다.

그는 191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으로 조기유학을 갔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퇴학당하고 13살 때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부터 한일동114) 으로 부터 태껸과 서도를 사사받았다. 소위 문무를 겸한 한일동으로 부터 고액의 수업료를 내면서 개인지도를 받았다. 6년간의 한학과 태껸을 사사한 최홍희는 1937년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동아상업학교(야간부)를 거쳐 1943년 중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유학을 가는 즉시 가라데 수련(한국인 임씨 밑에서 수련)을 계속하여 해방 당시 그는 2단을 소지했다. 대학 학업과 무술 수련을 겸한 그는 유학 가기 전에 익힌 태껸의 실력을 바탕으로 동경 YMCA에서 강의를 하였다. 이는 그가 분명 총명하였고 뛰어난 실력를 소유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1944년 1월 일본군에 징집되어 평양 제30보병사단 42부대에 배속되었다. 그해 11월 조선학병들을 중심으로 반일동맹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하지만 부대를 탈출하기 직전 일망타진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평양의 형무소에서 복역 중 해방을 맞아 석방 되었다.(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 이틀 전 일본의 패망으로 옥문을 나섰다는 드라마틱한 설도 전한다) 당시의 혼란한 사회적 환경은 집안이 부유한 유학파들이 가라데를 배우고 와서 자신을 지켜줄 것은 '무술이라는 힘' 밖에 없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당수/공수(가라데) 도장들이 문을 열게 되면서 소위 현대적인 경영방식의 무술도장이 정식으로 탄생하면서 이른바 초기 5대 문파115) 가 창설되었다.

해방 후 군사영어학교입교 및 수료, 조선경비대 육군 참위로 임관하여 국군창설요원의 한사람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대령시절 미 육군 군사학교 초,고등군사반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전 발발로 귀국하여 전쟁 중 창설된 육군종합학교의 부장교수를 역임하며 현대전술에 입각한 무술(태권도)의 기술과 동작을 연구할 수 있었다.(아마도 이 때가 그가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나 싶다)

그 후 1953년 9월, 육군 소장 시절, 제주도 모슬포에서 육군 제29사단이 창설되었고 그가 초대 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부대에서 전군에 무술(태권도, 당시에는 태권도란 고유명사가 없었다)를 보급하는 기간요원들이 양성되었다.(이 육군 제 29사단은 1954년6월 제주도를 떠나 1군단에 배속되었으며, 사단 창설 1주년과 군단 창설 4주년 기념식 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그 위용장엄한 태권도시범이 펼쳐졌다)

113) 2002년 6월 15일 평양에서 사망 후 혁명열사능에 안장되었다. 북한의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의 제6부 ~ 제9부는 최홍희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114) 한일동韓溢東(1880 – 1951)의 호는 옥람玉藍이다.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당대의 명문가이고 서예의 명필이자 문장가였다. 독립운동가이며, 또한 태껸의 고수였다.

115) 초기 5대 문파는 청도관(이원국), 무덕관(황기), 조선연무관(지도관, 전상섭), YMCA 권법부(창무관, 윤병인) 그리고 송무관(노병직)이다. 무덕관의 황기만 제외하고 모두 일본 유학파이다.(황기는 만주에서 무도수련을 시작하였다)

"모아 모아서 한눈에 한번에"

그랑투어 드 시네마 15일

그랑투어(Grand'Tour)란? 18세기 당시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사교/테마여행을 '그랑투어'라 불렀습니다. 한-미 헤럴드가 손을 맞잡고 크루즈, 항공, 리무진, 기차 여행의 장점을 '모아모아', 영화 테마를 입혀 시네마 그랑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영화같은 삶을 산 당신, 화려한 휴가를 떠나세요, 이제 여행은 그랑투어입니다!

특별기획가 :$5,999 특별출발 : 5월26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걸작, 추억의 명화 그장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드리 햅번' 아이스크림을 먹고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되어
카사블랑카를 거닐고 암흑가의 혈투와 대부의 위엄이 느껴지는 시실리섬에서
만나는 진한 알파치노의 향기에 취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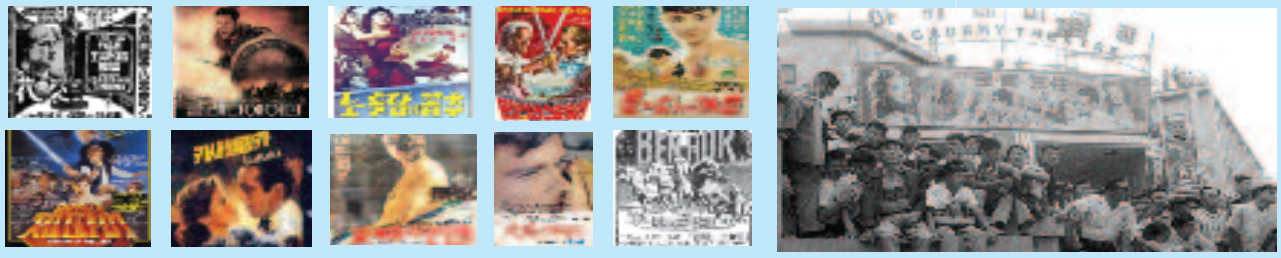
초호화 크루즈 | 편안한 항공이동 | 1등석 TGV열차 | 최신형 리무진

방문도시 & 명작영화

밀라노 : 냉정과 열정사이 / 카사블랑카 : 카사블랑카 / 제노바 : 초호화 "크루즈 투어" / 로마 : 로마의 휴일, 벤허
팔레르모 : 대부 / 튀니스 : 스타워즈 / 팔마 : 지중해 / 발렌시아 : 럭셔리 골프 투어 / 마르세이유 : 몬테크리스토 백작
모나코 : 007 네버세이 네버어게인 / 칸느 : 영화 시상식장 "팔레 데 페스티발 에데 콩그레 투어"
니스 : 태양은 가득히 / 파리 : 퐁네프의 연인들, 노틀담의 곱추

명작식사 & 명품호텔

명작이 되는 식사와 4성급 명품 호텔!
크루즈 선실 중 바다를 볼 수 있는 **발코니캐빈 /** 전일정 4성급이상 **럭셔리 특급호텔 /** 가시는 곳의 특별한 향연! **지역별 특식제공**
모로코 - 모로코 전통요리 **쿠스쿠스 /** 프랑스 - **에스까르고, 소고기, 브르기뇽, 퐁듀정식**
이태리 - **파스타, 카프리쵸사 피자 /** 스페인 - 전통해물요리 **빠에야 /** 크루즈 - **특급 코스요리, 세계각국요리 부페**



이벤트
하나, "친구야 영화보러가자"
(동창회, 단체모임, 추억의 단체사진 앨범 증정)
두울, 예약자 전원에게
명화 DVD 세트 증정

초호화 최신 크루즈의 호화로움, TGV 1등석열차여행의 여유로움, 빠르고 편안한 항공이동과 최신형리무진 버스이동!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식사, 미국과 현지 2인1조 가이드, 발렌시아 골프와 파리 쇼핑, 크루즈 영화상영회,
영화 속 명소 포토 콘테스트 등 색다른 재미까지 기대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해 드립니다.

현지 일정

1일차
LA 및 미국과 한국 각 지역 출발

2일차
이탈리아 밀라노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투어

3일차
호텔 조식 후 밀라노 시내 투어
영화 테마투어 - 냉정과 열정 사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4일차
호텔 조식 후 카사블랑카 시내투어
영화 테마투어 - 카사블랑카
석식 후 카사블랑카 출발
밀라노 도착,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5일차
호텔 조식 후 제노바로 이동 및 시내관광
크루즈 탑승 수속
제노바 출항 및 석식

6일차
로마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로마의 휴일 / 벤허
글래디에이터

7일차
시실리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대부
시네마 천국

8일차
튀니지 튜니스 도착 현지 관광
영화 테마투어 - 스타워즈
튀니스 출항

9일차
팔마 드 마요르카 기항
영화 테마투어 - 지중해

10일차
발렌시아 기항
영화 테마투어 - 랜드 앤드 프리덤
럭셔리 골프투어
출항

11일차
프랑스 마르세유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몬테크리스토백작

12일차
모나코로 이동, 왕궁 및 몬테카를로 관광
영화 테마투어 - 007, 네버 세이 네버 굿바이
칸느, 니스로 이동
영화 테마투어 - 칸느 영화제
태양은 가득히
석식,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13일차
호텔 조식 후 TGV고속철 1등석 탑승
파리 도착 시내 관광
영화 테마투어 - 노틀담의 곱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14일차
파리도착
영화 테마 투어 - 퐁네프의 연인들
비포 선셋 등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15일차
파리 출국
LA 및 미국과 한국 각 지역 귀환

MSC 프리지오사(MSC PREZIOSA) 총톤수 139,400톤/총 탑승 5,284명/ 승무원 1,332명/1.637 객실 150개의 분수, 120m 워터 슬라이드, 바와 라운지 21개, 수영장 5개, 자쿠지 12개, 인터넷 센터, 정찬식당 2개, 뷔페 2개, 스페셜티 레스토랑 2개, 회의실, 디스코텍, 카지노, 스파, 미용실, 포토 갤러리,어린이 놀이방,면세점, 비디오 아케이드, 야외 극장, 어린이 아쿠아파크, 대극장, 농구장 등 VIP를 위한 99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요트클럽'은 장거리 점보기의 1등석이나 호화 리조트의 스위트 룸을 능가합니다. 전용풀, 전용스파, 24시간 버틀러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매일 밤 선상신문이 각 선실로 배달되며, 각종 스포츠, Deck Game, 칵테일, 스시 만드는 법, 볼룸댄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의 합니다.

MSC 프리지오사(MSC PREZIOSA)
2013년 3월 첫 운항한 초대형 최신 크루즈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티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Fax. 617-254-4210
EMail. editor@boston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人 호(互)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Father, if you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 누가복음 22:42

한국의 4.29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걷을 수 있었던 것은 성완종 파문 속에서도 전형적인 재보선(再補選)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이란다. 지역일꾼론이 먹혔고,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조직력을 동원해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는 것.

반면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건만 낮은 투표율로 효력을 잃었고 야권 분열로 '집토끼'마저 흩어지면서 패배했다는 분석이다.

30일 비공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 당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거패배에 대해 당지도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사퇴를 요청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의총 분위기는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도 많았으나 문 대표와 친노(친 노무현) 진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지금 사퇴하면 당 전체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맞섰다. 비공개 최고 회의에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나부터 사퇴하겠다"고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사퇴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를 받고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성찰하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 무겁게 통감한다"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4곳의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사람이지"하는 여론을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도 "전략의 상대인 박근혜 정부를 잘못 판단한 것은 互(호)를 착각한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한다.

바로 그 실수가 '4.29 보궐' 선거 네 곳에서 100% 실패한 증거로 나타난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관악을, 인천서. 강화을 3곳에서 새누리당 당선. 광주 서구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 확정, 새정치연합에서는 0%로 결정되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승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못 읽은 자신들의 과오는 접어놓고 유은혜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으며 대안(代案)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전력하겠다"고.

4.29의 4개 지역구의 민심도 못 읽은 야당(野黨)이 "국민의 삶을 읽겠다"는 포부와 그 대책을 믿으라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한가운데서도 새누리당이 4.29보선에 승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힘이 실릴 듯.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3개월만에 지도력이 위기에 봉착한 셈. 당 안팎에서 문 대표의 책임론도 계속 거론될 조짐이다.

이번 재보선 지역구가 인천서, 강화을 제외하면 모두 야권 우세지역이란 점에서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의 터 밭인 광주에서도 천정배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조짐까지 내다 보인다.

문제는 야당이 제2정당이라는 자기신분이 명확한 반면, 국회의석이 더 많은 여당과는 "맞서지 말고 협력범위를 확대하며 손을 맞잡는 자세를 찾는 것이 호혜(互惠)정당"으로 커가는 자세다.

互호: 交也교야 – 서로 호. 글자의 모양을 보면 첫 번째(一)가 아닌 두 번째(二) 즉 둘 째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와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

그 접근 방법으로 交(교: 相合상합 – 사귈 교)자가 등장한다. 交를 다시 보면 亠: 義闕의궐, 의로운 대궐. 즉 '하나님의 궁궐'이란 뜻. 이 궁궐의 주인이 父(아버지 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互 즉 "두 사람이 서로 사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

한 마디로 互는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된다는 뜻. 해서 二 사이에 "위ㄷ" 고리와 "아래 그" 고리가 서로 연결된 것이 "互"자로 그려진다.

이 연결고리를 "十"로 표시해서 위ㅡ 아래ㅡ 둘(二)을 연결한 것이 "王: 君也임금 왕"으로 연결된 것. 해서 王은 "예수 그리스도의 十자가 = 사랑의 표상"의 상징, 곧 온 인류의 죄(罪)를 "十에 못 박으신 왕(王)"으로 그려진다.

互의 주역이신 예수께서 직접 王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성경에서 –.

"빌라도가 가로되 네가 王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王)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You are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he truth listens to Me." – 요한복음 18:37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罪)인인 인간과 하나님(一)을 연결(互)하시려는 왕(王)으로 임무 완수를 하신 것"이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十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인 互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

이 互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一)과 그 외아들 예수님(二)과 그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성령(聖靈三)님과의 연결고리, 말을 바꾸면 성삼위(聖三位)와의 연결이 불가능한, 불쌍한 인생으로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결론!!

互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하늘(天: 二人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과의 연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것을 네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26

이것이 互의 본 바탕이다. 땅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연결하는…

하나님(一)과의 연결고리이다, 互는.

제품문의 주문전화 www.heraldemart.com 213.487.0125 일 이 오세요~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주는 홈쇼핑
Herald eMart

명품 공진단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시 구매해 주는 제품

精氣를 돋우고 氣와 血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

名品 공진단

공진단은 사향, 녹용 등 최고의 약재를 엄선하고 동의보감 원처방의 정품(正品), 정량(正量)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31% $800 10개 BOX $550

37% $1980 30개 BOX $1250

✓ 이런 분들에게 명품 공진단을 추천합니다!

✓ 공진단의 효능

세계가 인정하는 골든 선야타 브라질산 명품

Sunyata 순도 100% 고함량, 항암치료, 헬리코 박터 사멸!

현존하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자랑하는
그린 프로폴리스

천연항생제로 소문난 프로폴리스는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

그린 프로폴리스란?
브라질에서도 미나스주에서 생성되는 짙은 청록색 액기스로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장인 기업에서 만들어진 희귀성, 희소성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Artepillin-C
강력한 항암작용 제재로 최근 일본 국립예방연구원인 마쓰노데스야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물질로써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無 합성착색료
無 합성착향료
無 합성감미료

효과 및 기능
위장 계통(위궤양, 위산과다, 만성위염)특효
알러지 비염, 축농증, 잇몸 염증 질환
면역기능 강화(SOD 효소 다량함유)
진통, 지혈,. 전립선, 자궁경부 계통 질환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무좀,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치질
강한 항암작용(Artepillin-C), 각종 종양제거
당뇨, 간질환,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21% $100 $79

대한민국 완도의 청정바다가 준 선물 해림후코이단

한국정부의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탄생한 '해림 후코이단' 미국상륙!

방사능 오염에 걱정없는 완도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림후코이단을 만나보세요

후코 플러스 세븐베리즈 (80ml x 30팩)	프리미엄 후코아셀 (690ml)	후코이단 에코 (50ml x 30팩)
고품질 후코이단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7가지 베리가 배합된 제품	후코이단은 물론 또 다른 항암 물질 후 코샨틴과 커큐민까지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에 미네랄을 넣어 그 기능을 더욱 배가 되어 맛을 좋게한 제품 입니다.
$249	$399	$199

닦아내는올인원실팩!
연예인 청담금실팩!

10 in 1 팩 하나로~ 싹!

당겨주고, 채워주고!
피부 겉과 속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ALL KILL 금실 리프팅팩

전속모델 오연서

한국 홈쇼핑 대박상품

20% $99 $79

[에어 프라이어]
Air Fryer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강한 튀김기

40% $315.95 $189.95

LG HAUSYS

LG 놀이방매트

free delivery

"아이가 좋아하는, 유익한 디자인"
명품 캐릭터, 다양한 학습놀이

"자세히 볼수록 빠져드는 놀이방매트"
안전과 편안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아이가 쓰는 제품 청결이 제일이죠"
쉽고, 편리하게 물걸레 하나로 OK

"매트 위에 넘어져도 안심인 이유?"
LG하우시스만의 탁월한 쿠션감

11%	프라임 고급중형 뽀로로 여행 130x190x1.5cm	$179.99	$159.99
13%	프라임 중형 뽀로로 기차놀이 130x190x1.1cm	$149.99	$129.99
11%	1등급 놀이방 뽀로로 렛츠고 210x140x1.8cm	$279.99	$249.99
11%	아소방 매트 210x140x1.8cm	$279.99	$249.99
9%	고급초대형 놀이방매트 230x140x1.5cm	$219.99	$199.99
9%	프라임 고급초대형 뽀로로 친구들 250X140X1.5cm	$219.99	$199.99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0)

가볍게 생각하는 투자경비

재정신문인 월 스트리트에 "투자경비에 대해서 자신에게 속지 마라. (Stop deluding yourself about investing expenses, April 10, 2015, WSJ)" 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 반듯이 생각해 봐야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의 첫머리만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누군가가 매달 부과되는 나의 전화사용료가 얼마인지 묻는다면 정확히 얼마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데 경비로 얼마 부과되는지 물어본다면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비는 매달 배달되는 청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로 된 청구서가 없으면 전자우편(email)으로 받기도 합니다. 전화비뿐만이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공과금도 비슷합니다. 청구서를 받고 얼마인지 확인한 후 수표(check)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투자하는데 부과되는 경비는 이러한 청구서가 전혀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건 재정설계사의 도움으로 투자하건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금융업계에서는 투자자의 계좌에서 조용히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투자하는 돈은 한두 푼도 아니고 나의 소중한 목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의 경비는 매달 부과됩니다. 재정설계사는 사분기마다 부과합니다. 브로커는 사고팔 때마다 부과합니다. 보험인은 보험상품을 팔 때마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경비에 대해서 수표도 쓰지 않고 신용카드에 부과도 되지 않으므로 투자 경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갈수록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금융회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상품에는 투자경비가 반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작년에 투자 비용으로 일반인에게 부과한 금액이 $170억 달러($17 billion)입니다. 2014년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균 보너스가 $173,000였습니다. 이 보너스는 그 전해보다 $20,000이 적어진 액수입니다. 이 모든 돈은 일반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투자비용 1%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100만 불을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수수료가 1.0%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 약 $560만 불이 되고 2.0%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460만 불이 됩니다. 단 1% 수수료 차이가 20년 후 $943,454가 됩니다. 거의 백만 불($1,000,000) 차이입니다.

투자비용 1% 차이가 이러한데 투자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1%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인 어뉴어티의 수수료는 4%~10%입니다. 재정설계사가 선택하는 뮤추얼 펀드(Load)는 평균 6.5%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non-Trade REITs)는 약 10%입니다. 수수료 외에도 매년 부과되는 경비는 부동산 투자는 2%, 어뉴어티는 3.6%~4.5%,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는 약 1.3%가 매년 부과됩니다.

사실 비용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가 제대로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입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경비는 경비대로 나가고 투자 수익률도 계속 저조하기에 시간이 지나도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투자 비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화비 청구서처럼 투자 비용도 청구서를 작성해야 일반 투자자가 투자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팔 때도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청구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신고(4)

Ⅲ.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은 과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자(FBA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추후 누락분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번주는 이 중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를 위한 규정

미국내에 살든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살든 '해외계좌 간소화 규정' 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l)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영주권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중 FBAR에 의한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자가 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거주자 요건(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정보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은 ?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해 누락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 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로 부과합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누락한 해외금융계좌나 누락된 소득을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해외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5%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는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됩니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5% 가산세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누락한 금융자산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3년간).

따라서 부동산 등과 같이 FBAR나 FATCA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의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위의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엇을 신고 해야하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미납부세금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② 확인서(Form14654)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⑤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앤티비(enjoy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컨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듯, 더 쉬워진 개정판 AP US History (6)

장문형 에세이 (Long Essay Question)

대부분의 학생들은 AP US History의 에세이 섹션에 큰 부담을 느낀다. 과거에도 그랬고, 개정 AP에 대해서도 그렇다. 제한된 시간 동안 '역사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완결된 논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연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우 공포스러운 작업일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순간의 실수가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지선다형(Multiple Choice) 문제와는 달리, 에세이 섹션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위주로 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유도가 있고, 부분점수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위안을 삼아주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어떤 채점자도 60분 (DBQ: Document Based Question) 혹은 35분 (LEQ: Long Essay Question)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완벽한" 에세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주제들과 각 시대의 흐름 등에 대해 잘 정리를 해두고, 동시에 과거 기출 에세이들을 참고해서 여러 에세이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거나 실제로 에세이를 써보는 연습을 한 두번이라도 해볼 것을 권한다. 실제로 가상의 에세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배운 내용을 정리할 기회를 얻는다. AP US History에서 에세이 섹션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

오늘은 나름 새롭게 도입된 장문형 에세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다. 기존 AP US History에는 1개의 Document Based Question 외에 Free Response Question이라는 섹션이 있었고, 1865년 이전 시대에서 1문제 (2문제 중 택1), 1865년 이후 시대에서 1문제 (2문제 중 택1), 총 2개의 FRQ 에세이가 요구되었었다. 개정 AP에서 Document Based Question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FRQ 대신 장문형 에세이 (LEQ: Long Essay Question)로 대체되었는데, LEQ 섹션에서는 2개의 에세이 주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LEQ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진 역사적 논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있다. 기존의 FRQ와 크게 달라진 한가지 특징은 LEQ의 모든 문제는 "지지 (support), 보완 (modify), 혹은 반박하라(refute)"의 형태라는 것이다. (과거의 FRQ문제는 훨씬 다양했었는데, 그 중 ~라는 역사학적 주장에 대해 평가 evaluate하라는 문제와 유사하다) 가령,

Some historians have argued that the New Deal was ultimately conservative in nature. Support, modify, or refute this interpretation, providing specific evidence to justify your answer. (어떤 역사가들은 뉴딜이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신의 논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동원하여, 위 해석에 대해 지지하거나, 수정하거나, 반박하는 논증을 전개하라)

장문형 에세이 (LEQ)건 문헌 기반 에세이 (DBQ)건 기본적인 에세이의 틀은 논증형 에세이라는 점을 유념하자. 즉, 주어진 질문에 관련된 논제 (Thesis)를 얼마나 잘 발전시켰는 지가 관건이 된다. 당연히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서론에서는 배경/ 맥락 (Background/ Context)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에 에세이에서 묻고 있는 주제/질문 (Topic/ Question)을 연결시키고, 여기에 논제 (Thesis)와 에세이의 방향 (Roadmap)을 그려줄 것.

특히, 서론을 여는 첫 한두 문장 정도는 질문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이나 문제의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경을 시대별로 그리고 주요 주제별로 미리 머리속에 담아가는 것이 수월하다. 뉴딜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다루고 있는 위의 문제의 경우라면, 미국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간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3R(Relief, Recovery, Reform)로 대표되는 대규모 사회, 경제적 개혁인 뉴딜을 제안하였다는 배경설명이 자동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장문형 에세이가 한 가지 역사적 견해에 대한 평가로 한정된 덕에, 몇 가지 연습을 해본다면 에세이 작성이 훨씬 수월하다. 가령 지지(Support)를 택했다면" New Deal was ultimately conservative in nature"을 살짝 수정하여 "Although there have been criticisms about socialistic implication of it, FDR's New Deal was indeed a conservative program that saved American capitalism" 이라는 식으로, 수정 (Modify)를 택했다면 "New Deal was a conservative program in that it saved American capitalism. Even so, some of the New Deal reforms and regulations purged the worst abuses of laissez-faire capitalism." 라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반박 (refute)를 택했다면, "Far from a conservative program, the New Deal was a revolutionary measure that introduced the component of social planning and regulation to economy, thereby ultimately changing government's role in economy." 라는 식으로 논제를 정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서론의 나머지 부분은 본론에서 전개할 논제에 대한 간략한 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 아웃라인은 미리 설정하고 쓰기 시작하자. 나머지 에세이의 질은 본론에서 예시와 증거에 의해 논제가 적절히 그리고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결론은 정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음주 목요일까지, 모두 화이팅!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주택 '렌트 vs 구입' 기준은 28개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하우스 리스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다. 렌트비가 오른다는데 이번 기회에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전문가들은 렌트냐 구입이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개인이 얼마나 한 곳에서 오래 살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곳에 장기간 거주 할 계획이 있으면 구입이 유리하고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렌트가 낫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정보 사이트인 질로닷컴의 스탠 험프리 수석 경제학자는 "전국 평균으로 볼때 한 지역에서 28개월(2.3년)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렌트를 하는 것 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렌트냐 구입이냐의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는 것은 주택구입시 여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후 모기지 페이먼트가 현재의 렌트비와 같다 하더라도 집을 사게되면 Closing Cost, 융자, 타이틀 보험, 감정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주택구입 가격의 2~3%가 바이어측 매매경비로 나간다. 50만달러짜리 주택이라면 다운페이먼트 자금 이외에 1만~1만5000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주택 구입 후 다음 연도의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세금 크레딧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매 경비는 전국 평균으로 볼때 28개월을 거주하면 뽑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구입이 유리한지 렌트가 나은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은 28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주택구입이 유리하게 된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의 맨해튼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 5~7년 이상을 거주하는 것이 좋다. 반면 디트로이트처럼 집 값이 싼 도시는 1년만 산다할자리도 집을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MA인 경우는 2년 이상 살거라면 사는게 유리하다. 그리고 보스톤 지역처럼 학교가 많은데는 없으므로 세를 주었을 때 무지 잘 나간다. 살다가 investment property로 가지고 있는것도 좋다.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시는분들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시려면 적어도 5년에서 7년을 있으셔야 한다. 이때 집값에 40% 에서 50%를 다운하시면 나머지는 집을 보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 렌트로 돈을 버리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공부 끝나시고 돌아 가시면서 렌트를 주시고 가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렌트로 유지가 되어 좋은 investment이 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www.pospay24.com

worldpay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_ 617-466-2212

TOLL FREE _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지니스 융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지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번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내
알링톤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번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Ⅰ.SAT Ⅰ(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Ⅱ.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Ⅲ.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